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양국 국민에 큰 이익 확인”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총리, 정상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전문가들 현장 시찰단 파견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정상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 한자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먼저 지난 4월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며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며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

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한미일 3자 간 협력의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

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

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두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5월 12일은 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5월 12일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식물원에서 ‘2023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식물건강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5월 12일을 지정하여 선포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검역본부는 5월 12일 기념식을 개최하여 ‘세계 식물건강의 날’ 소개 및 현황보고, 기념수 식재, 주제영상 상영 그리고 포스터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식물원에서 식물건강 관련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식물검역 관련 VR 체험을 포함한 식물검역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수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세계 식물건강의 날’ 행사를 통해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며, 식물병해충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가간 유입·확산을 차단하여 농업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지자기사

경북도,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에 핀셋 지원!

경북도는 초기 창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성장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사업’의 “배워야산다 아카데미”는 사업 방향성 수립 어려움,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창업 초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배워야산다 북학기 : 필수 기초관리 역량강화 교육 △여름학기 : 사업 성장 역량강화 △가을학기 : 시장화&자원동원 역량강화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북도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우선 부여한다.

“배워야산다 북학기” 교육에 참가한 기업은 선후배 기업 교류 및 성장 지원 안내, 인사·노무관리, 사회적가치 지표 관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사용법, 부정수급 예방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 운영 실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사·노무관리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태관리,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노동법 등을 교육하며, 사회적가치지

표 관리에서는 사회적가치지표 기초 지식, 관리방법 등에 안내한다.

또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사용법은 보조금 관리 규정과 부정수급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밀착형 현장 지원을 위해 여름, 가을학기 개설 전에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업 중심의 교육 운영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에도 나섰다.

기업들이 가장 받고 싶은 교육 1위는 자금조달, 2위 마케팅홍보, 3위 직원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여름, 가을학기에서는 기업에게 필요한 것을 핀셋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권역별 교육에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교사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사·노무, 정부지원금에 등에 관

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 기회가 적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연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어려웠던 분야에 사례를 들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지식을 얻게 됐다”며 다음 학기에도 참여 의지를 불태웠다.

황인수 경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과 성숙기 기업 간 사업 역량 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존재한다”면서,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인 역량강화교육을 마련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지원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옛 충무시설 도민 첫 개방, 2회 경기기회마켓 성료

5월 5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날 연휴 동안 문호리리버마켓과 함께한 두 번째 경기기회마켓이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옛청사에서 열렸다.

5일부터 시작된 바람을 동반한 비로 대부분의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경기기회마켓은 행사 장소를 실내로 옮겨 공연을 제외하고 계획한 대로 3일간의 행사를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천으로 인한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청이 있을 당시 울지현관 장소로 활용했던 충무시설을 50년 만에 최초로 도민들에게 개방했다. 이곳

에서는 형겅 모빌 만들기, 병아리 만들기, 뜨개질(자이언트안 니팅) 체험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경기기회마켓에서는 농부들이 정성스럽게 기른 농산물과 작가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수제 식품 등을 판매했으며, 총 66팀의 판매부스 중 개최 지역인 수원시 16팀을 포함한 총 50팀의 경기도 지역 판매자가 참가해 경기지역 농업인과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경기기회마켓을 방문한 수원시에 사는 주부 A씨는 “비가 와서 어린이날 행

사가 모두 취소돼 갈 만한 곳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비가 와도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게 됐다”면서 “도로 밑에 지하 병커가 있는 것에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다양한 체험도 있어서 아이들과 방문하길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경기기회마켓을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해 경기지역 작가와 농업인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도청 이전으로 위축된 주변 상권 살리기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영양 산나물축제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기간 5월 11일(목)~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UFTF 영양축제 후원재단

Image: Freepik.com. This cover has been designed using assets from Freepik.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천 원의 아침밥' 경기도 추가 지원 끌어낸 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도의회 국민의힘 제안 따라 참여 대학 추가 지원 의사 정부에 전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대학들에 경기도가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광미숙)은 경기도가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에 대한 도 차원의 추가 지원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추가 지원을 제안한 도의회 국민의힘에 최근 보고됐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참여 여부 조사에서 도는 농식품부 지원이 확정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와 함께 세부적인 지원 계획은 참여대학 확정 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농식품부의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2차 모집을 통해 참여하는 도내 대학은 18곳으로, 정부는 지난 4일 이들 대학 모두를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1차 모집에 선정돼 이미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 중인 5개 대학까지 더하면 총 23개 도내 대학 '불임'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 제안에 따라 도는 이들 23개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을 마련, 정부가 지원하는 1천 원과 별도로 '천 원의 아침밥' 한 끼에 1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초부터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도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중앙당 박대출 정

책위의장과도 소통하며 지자체의 사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도내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잠정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도의 최종 결정을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광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우리 미래인 대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를 보장하는 일에 도와 도의회가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사

미래교육환경 기반구축, 학교현장 지원에 방점을 두고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8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조 1,594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9,229억원 보다 2,365억원(4.0%)이 증가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당초 1,110억원 보다 2,367억원이 증액된 3,477억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증액분과 2022년도 지방교육세 정산금,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이 세입에 반영됐으며, 세출예산은 그린스



마트스쿨,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지원 등 학교현장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예산 등으로 편성·제출됐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엄격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그 성격에 맞게 급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히 조정하고, 새로운 수요 발생, 환경 및 여건변화로 긴급히 편성해야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 없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용인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47차 정례회의, 평택시에서 개최

용인시의회 윤원균 회장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용인특례시의회는 4일 오후 4시 30분 평택시의회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윤원균) 제47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3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각 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생 협력을 위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를 결정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 경기도시·군의회 권역 조정으로 인해 의왕시, 과천시의회가 경기도 남부권역으로 조정



되어 남부권이 8개 시의회가 되고 벌써 두 번째 정례회의를 하게 됐다. 앞으로도 의장님들과 함께 남부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적극 소통하고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부권 8개 시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의장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회의장으로 구성됐다.

조혜영/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관 하늘소(所) 개장식 참석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일 열린 송현동지광장에서 진행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관 하늘소(所) 개장식에 참석했다.

'하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의 하늘소(所)는 지상 12m 높이 조형물이다. '폐기물 없는 서울비엔날레'라는 목표에 맞춰 폐막 이후에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조립·해체·확장·축소가 용이한 금속비계로 제작했다.

하늘소에 오르면 경북·북한산·인왕산 등 주변 지형과 산세, 송현부지와와 관계,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이 산·강·바람·빛 등 자연적 요

소를 어떻게 고려해 계획됐는지 체감할 수 있다.

김현기 의장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4m 높은 담에 둘러싸여 안을 들여다 볼 수조차 없었던 단절의 땅이 하늘과 땅, 산까지 서울의 파노라마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열린공간이 됐다"라며, "서울시민들이 하늘소를 통해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선장·축소가 용이한 금속비계로 제작했다."

또, 김 의장은 "도시건축을 통해 서울의 새로운 100년을 그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9월 열리게 된다"라며, "실험적이고 도

전적인 도시건축을 통해 세계적 건축 도시로 발돋움할 서울의 미래를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병수 총감, 이스라엘·노르웨이·헝가리·이탈리아·프랑스대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4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오는 9월 1일~10월 29일까지 열린송현동지광장과 서울도시건축전사관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땅의 도시, 땅의 건축산길, 물길, 바람길의 도시, 서울의 100년 후를 그리다"가 주제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으로 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 교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 피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또 연령은 낮아지고 가해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성폭력 피해 학생

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보호자 상담 및 교육,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영양군의회,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



영양군의회는 5월 8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김영범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결의문에서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젠다에 지리적 우위요건을 보유한 영양

군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다'고 뜻을 밝혔다.

영양군은 각종 행사와 사업설명회, 범군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지역 내 민간 협력단체와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석현 의장은 "영양 양수발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로 영양군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전력공급 정책에 영양군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표 우수디자인 건축물' 찾는다... '제41회 서울시 건축상' 공모

6월 9일까지 접수... 공공·민간부문 건축상 9작품, 시민공감특별상 2작품 선정

오는 9월 열린 제15회 서울시 건축문화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6월 9일까지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공모, 7월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건축문화제 기간 중 시상할 예정이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두 개 분야로 개편하여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건축가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서울의 위상을 높여줄 건축물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분야 개편, 수상작 선정규모 조정, 수상작 홍보 확대, 수상작·건축가와 함께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건축상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공모를 진행한다.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대표 건축가 또는 설계자(건축가)가 자신의 건축물을 직접 응모하거나 제3자가 추천하면 된다. 서울시는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건축물 발굴을 위해 건축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년 이내 사용승인 받은 서울 시내 소재 건축물이라면 응모 가능하며, 최초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건축물도 포함된다. 제3자 추천은 6월 2일까지 설계자에게 공모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승낙한 작품에 한해 심사가 진행되며, 작품 추천은 건축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며 공공건축, 민간건축 부문, 총 9개의 건축상을 오는 7월 최종 선정한다. 시민투표를 통해 건축상 부문 수상 후보에 오른 9작품 중 최다 득표한

2개 작품에는 '시민공감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출된 작품은 해외 유명 건축가, 서울시 총괄건축가, 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올해의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예술성, 공공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설계자(건축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우수한 건축문화 실현에 참여해 준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건축주·설계자·시공자명 기재)이 함께 전달된다.

건축상 수상작은 오는 9월 '제15회 서울건축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며, 올해는 제1회부터 제40회까지 역대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하여 국내외 매체를 통해 작품, 건축가의 철학과

가치를 소개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갤러리1(가칭: 명예의 전당)에 상설 전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건축문화제 누리집 또는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상 공모와 함께 진행되는 '서울건축문화제'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다양한 건축 이야기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전시 제40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특별전, 연계사업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문화제 기간 중 건축문화 분야 연계사업 전시로 '대학생건축과연합회(UAUS)' 기획전시도 선보인다. 대학생건축과연합회 전시는 건축 전시문화를 더 많은 시민과 나누기 위해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 밖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테마별투어', '도슨트투어'를 비롯해 '시민참여형 건축문화포럼',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건축물·건축가)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서울건축문화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제15회 서울건축문화제'와 '제4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동시에 개최돼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시도를 다채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 분야 등 개편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준 우수한 건축물을 폭넓게 발굴,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재개발 재건축 가속 페달 밟아



속도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한다.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 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 등을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 명품 주거 도시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 사업은 재건축 29개 구역과 재개발 10중 48개 구역 등 총 77개 구역에 이른다. 뉴타운(16건)을 비롯해 도시정비형(9건), 공공재개발(8건), 3080복합개발(4건) 등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이다.

이러한 복잡한 개발 유형 가운데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 등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구는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 부서를 통합, 전담 부서 '주거사업과'를 2022년 11월에 신설했다. 집중적 행정 지원으로 사업의 속도를 더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 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3일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구의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도 열렸다.

센터는 신길5동 주민센터 1층에 마련했다. 정비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주민 교육과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한 '공

모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도 준비중이다. 건축물 노후로 개발 요건은 갖췄으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 응집력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가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가장 적합한 개발 방안을 찾는 것을 돕는다.

이어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과 '조합 직접 설립 지원'과 같은 공공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토지 등 소유자 선거인 명부 작성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정비업체 선정, 동의서 접수 등을 구청에서 맡아 사업 초기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은 정비구역 내 주민 50% 이상 찬성과 25% 미만 반대이고, 조합 직접 설립 지원은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이 추진위원회 생략에 찬성해야 한다.

7월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한다. 지난 3월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구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금년 지원 규모는 4개 단지 약 4억 8천여만 원이다. 주민 동의율을 충족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비용과 반환 방법, 기한 등을 규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의 도시정비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사업구역 개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해 일반 주민들이 다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라며 "집중적 행정지원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속도감을 더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에버랜드, 720품종 300만 송이 장미 만발

- ◇꽃의 여왕! 오는 12일부터 장미원에 세계 각국 장미 만개
- 국내 최초, 세계 최고 장미원 '어워드 오브 가든 엑셀런스' 선정
- ... 국제 장미대회 최고상 수상한 에버랜드표 장미 품종도 전시
- 식물세밀화, 플로레비다 팝업존, 향기터널 등 장미 이색 체험
- ◇푸드 체험, 버스킹, 포토스팟 등 오감형 장미 콘텐츠 풍성
- 장미 향기 맡으며 맛있는 먹거리 즐기는 푸드 페스티벌 진행
- 감미로운 버스킹 공연, 초대형 토끼 포토스팟 등도 펼쳐져

□ 사랑의 계절인 5월을 맞아 에버랜드에 '꽃의 여왕' 장미가 만발한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여 간 2만㎡ 규모의 장미원(Rose Garden)에 720품종 약 300만 송이의 장미가 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세계장미대회에서 연이어 최고상을 수상한 에버랜드 장미원과 자체 개발 장미를 다양하게 체험하는 것은 물론, 장미 향기를 맡으며 전국 유명 맛집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가든 푸드 페스티벌 등 '보고 느끼고 맛보는' 오감형 장미 콘텐츠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 세계 최고 'K-장미원'에서 720품종 300만 송이 장미 향연 】

□ 에버랜드 장미원은 지난 11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세계장미컨벤션(World Rose Convention)에서 세계 최고의 장미 정원에 수여되는 '어워드 오브 가든 엑셀런스'(Award of garden excellence)'를 국내 최초로 수상하며 K-장미원의 위상을 높였다.

에버랜드 장미원은 빅토리아가든, 비너스가든, 미로가든, 큐피드가든 등 4개 테마존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객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각 테마별로 차별화된 장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 봄에는 자체 개발한 24종의 신 품종 장미를 포함해 포트선라이트(영국), 뉴툰(미국), 나에마(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장미 720품종 300만 송이를 감상할 수 있다.

고객들이 장미꽃밭 속으로 들어가 가까이서 장미향을 맡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로즈워크는 물론, 장미 행잉화분과 알리움, 세이지 등 분꽃들도 조화롭게 연출돼 있어 다양한 포토스팟에서 로맨틱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장미인 '에버로즈'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벤 축제에서는 남박(용리단길), 파이리퍼블릭(안남동) 등 MZ세대 핫플레이스 맛집들과 식음 전문 브랜드들이 야외에서 피크닉하며 먹기 좋은 특별 메뉴를 선보이며, 정통 독일 밀맥주 에딩거, 네덜란드 맥주 바바리아, 미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에맥앤블리오스 등도 맛볼 수 있다.

□ 장미원을 더욱 로맨틱하게 채우는 특별 공연과 장미 포토스팟도 펼쳐진다.

스프링 온 스펀 축제 기간 장미원에서는 2인조 어쿠스틱 밴드의 버스킹 공연이 매일 2회씩 열려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감미로운 무대를 즐길 수 있고, 15미터 높이의 초대형 토끼 래빅이 장미를 가득 안고 있는 장미원 시그니처 포토스팟도 5월말 선보일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부, 아이들과 '에코백 만들기' 직접 체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부인 정우영 여사가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직접 에코백 만들기를 몸소 실천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7일(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 주경기장 개방 행사에 참여해 에코백 만들기 체험부스를 설치·운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부인 정우영 여사는 오후 1시 10분께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체험부스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나란히 앉은 뒤 직접 에코백 만들기를 체험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어린이에게 귀속말로 "왜 이렇게 잘 그려?"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정우영 여사는 웃으면서 어린이와 함께 에코백에 색을 칠하면서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 지사와 정 여사는 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 직접 그린 에코백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 에코백 만들기 체험 행사에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100여명 가량 줄을 잇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인기를 실감케 했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직접 체험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화성시, 5월부터 10월까지 축제 스탬프 투어

코리아 굿즈, 서해랑 케이블카 탑승권, 호텔 숙박권 등 풍성한 경품 준비해

화성시가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열리는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시즌제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오는 13일 개최되는 가족사랑축제를 시작으로 6월 화성벚꽃이축제, 9월 화성송산포도축제, 도농어울림축제, 10월 정조효문화제, 화성학생동아리축제, 화성루나빛축제 총 7개 축제가 해당된다.

시는 이들 축제장에 통합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스탬프투어 참여 방문객에게 현장에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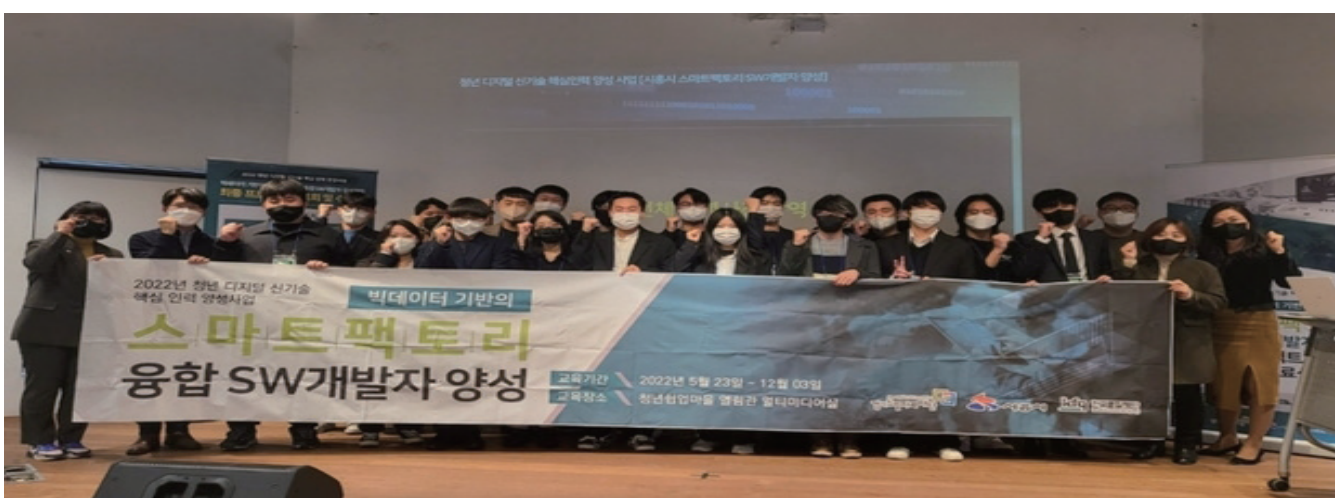
스탬프 투어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화성시축제시즌제'를 검색해 앱을 설치한 후 축제장에 설치된 통합홍보부스를 방문,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스탬프 참여 개수에 따라 코리아 굿즈, 서해랑 케이블카 탑승권,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이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최원고 문화예술과장은 "스탬프투어로 시민들이 더 많은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양질의 콘텐츠를 즐겨 온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시흥시, 산업현장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융합개발자 교육으로 청년 취업 늘어



시흥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팩토리 융합개발자 교육'을 8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미래기술학교 사업의 일부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팩토리 융합개발자 교육은 올해 시흥시와 '청년 핵심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디지털교육장에서 실시한다.

교육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과정으로 구성했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참여 실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산업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융합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교육에는 경기도에서 25명이 참가해 25명 전원이 수료했다. 그중 13명이 취업에 성공했는데, 시흥시 청년 8명이 포함돼 있다.

5월 8일 개강하는 올해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로, 월 40만원의 훈련 수당(80% 이상 출석 시 지원)을 지급한다.

교육생은 총 25명으로, 6개월간 매일 8시간씩 현장 실무 위주의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실제 기업과의 취업연계도 지원된다.

교육은 경기도 예산 3억725만원

으로 진행하며 시흥시는 교육장소 및 교육 장비를 지원한다. 올해 교육생 중 시흥시 청년은 총 16명이 참여하는데, 교육으로 인해 시흥시 예산 약 1억96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팩토리 융합 개발자 교육과 같은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시흥시에서 자주 실시해, 시흥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우용기자

화성시, 난청 어르신에게 맞춤형 보청기 지원한다

화성시가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관계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박학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장, 박진균 디만트코리아 대표, 안덕진 굿모닝보청기 화성지사 대표, 류한동 오티콘보청기 오산점 대표, 최혜숙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장, 박정숙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장, 김영진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난청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시가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께 최대 117만 9천 원이 지원된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는

작년 9월 이용운 화성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으며, 보청기의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 수행기관 3개소를 선정했다.

이에 이번 협약에 따라 디만트코리아, 굿모닝보청기, 오티콘보청기는 어르신 맞춤형 보청기 제작을, (사)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는 등록회원 대상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화성시노인복지관은 홍보 공간 제공, 상담 및 자원 연계를 담당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난청으로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도입된 보청기 지원사업은 총 300명의 어르신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양평군,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

양평군은 지난 3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신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녹색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녹색기술의 개발과 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이 지원되며, 공급기업은 현장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시장판로를 확대하고 수요기관은 혁신기술 적용으로 환경관련 현안 해결 및 규제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군은 환경신기술, 녹색기술, 혁신기술 등 다수의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환경분야 전문업체인 정우이엔티(주)와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한 실증 프로그램 적

용 대상 사업을 검토하여 '신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앞서 지난 2월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신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16년 3월 최초 가동되어 최근 인구증가에 따른 유입수량 증가로 용량증설이 시급한 상황에 따라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진행되어, 한국환경공단과 공급기업인 정우이엔티(주)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분야별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양평군의 발전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굿은 날씨에도 34만9천명 찾아 성황리 마무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 속에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안산시는 5~7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34만9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5일 계속된 비로 많은 공연이 취소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6일 오후부터 비가 그치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 현장을 찾아 다양한 공연을 즐겼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9개국 72개 작품의 거리예술, 퍼포먼스, 무용, 음악 등이 안산문화광장을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채웠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폐막프로그램은 안산시민들의 긍정적인 서사를 담은 '안산사람들(People in Ansan)'이 공연돼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안산사람들'은 '공정의 서사'에 주목해 소리꾼의 판소리와 어우러지는 현대무용, 치열한 오름을 보여주는 서커스, 그리고 거대인형의 결합을 보여주는 다원예술 작품이다.

윤종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이 총 연출을 맡아 사전 모집한 시민공연자 11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사람들의 '공정의 서사'가 담겨있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크니스 폼바'로 유명한 현대무용단 모던테이블과 현대서커스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연창작집단 사

람', 시민과 다양한 커뮤니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창작집단 움스'가 협력연출로 참여했다.

클라이막스엔 이지형 미술감독이 제작한 거대인형 공기조형물이 떠올라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축제는 광장을 넘어 안산을 바라보게 만드는 관점의 전환을 꾀하면서 거리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질서 있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에서는 안산시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느꼈다면서, 내년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훌륭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했다.

안산 도심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끝으로 폐막을 알린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내년을 기약하며 마무리 됐다.

최정부기자



내 상인 바깥은 희망화성

2023 화성시 축제 시즌제 스탬프 투어 참여 방법

축제 시즌제 통합홍보부스에서 스탬프 날인, 화성시 SNS 댓글 인증 후 경품 수령

- step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화성시축제시즌제' 검색
- step2 앱 설치 후 메인화면에서 '2023 화성시 축제 시즌제' 선택
- step3 본인 SNS에 축제 시즌제 QR코드를 통해 '스탬프 날인'
- step4 화성시 SNS에 '굿모닝 인증' (#화성시축제시즌제) 게시 - 화성시 블로그, 화성시 페이스북, 화성시 인스타그램
- step5 인증샷 화면에서 인증, 전화번호, 주소 작성 후 '경품 수령'

* 인증샷 화면에 본인인증 사진, 신분증 촬영
* 우편 통으로 발송되는 경품 수령 시 화성시 블로그 및 축제스탬프투어 앱에서 공지

용인특례시, 축구 신태용·야구 양준혁을 장학재단 홍보대사에 위촉

용인특례시의 인재 육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과 '양준혁야구재단'의 양준혁 이사장이 팔 걷고 나선다.

용인시장학재단은 4일 재단 홍보대사에 양준혁 이사장과 신태용 감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는 용인시장학재단 관계자와 스포츠 클럽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 신 감독은 용인 지역 내에서 축구교실을 열고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고,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대학 축구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양준혁 이사장은 비영리 재단법인인 양준혁야구재단을 설립해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을 13년째 돕고 있으며, 엘리트 야구장학사업과 생활체육 및 유소년 야구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축구와 야구계의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용인시장학재단은 스포츠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장학금 기탁을 기대하고 있다. 장학금은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된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1995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용인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며 "더 나은 도시로 성장하는 용인특례시에서 좋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준혁 이사장은 "용인시장학재단과 뜻이 맞아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됐다"며 "장학재단과 함께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용인을 대표하는 인재로 키

우기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용인시장학재단 명예이사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영상인사를 통해 "지난 21년 동안 지역 인재 양성 역할을 담당한 용인시장학재단은 지난해 특례시 승격과 발맞춰 장학사업 기능을 확대했다"며 "신태용 감독과 양준혁 이사장의 홍보대사 위촉이 장학사업 홍보와 인재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8일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 열고 거부 의지 재천명

박승원 시장 "광명시민은 일방적 사업추진을 좌시하지 않을 것"



18년 동안 결론짓지 못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여부가 판가를 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광명시민들이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졌다.

광명시는 8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끝까지 차량기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대표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박승원 광명시장, 양기대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과 구본산·오희령·이형덕·현충열·이재한·김중오·이지석·김정미 광명시의원, 최만·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오전 10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의 위원회 참석 요청을 목상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지속하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토부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18년간 타당성 조사만 3차례만 해온 이미 낡은 정책이며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국토부는 철학적 민주성마저 훼손한 채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전면 철회, 광명시민과의 직접 소통,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참석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에 따라라도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행 철도건설법 제4조3항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장관이 미리 관계 기관장 및 시장·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광명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2021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제2경인선(인천 청학~노온사)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해 광명시민들에게 반칙을 썼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당시에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미확정 사업이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소음, 분진, 지역단절을 비롯해 노온정수장 오염 위험, 산림축 훼손 등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작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민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궤기대회를 비롯해 120차례 이상 릴레이 반대 성명 발표, 촛불집회, 500미터 인간 띠 잇기 등 끊임없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소통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광명시민의 자발적 반대운동이 계속되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부당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업을 알고 있는 광명시민의 85.2%가 정부의 일방적 이전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이 같은 광명시민의 뜻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광명시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

다.

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광명시민의 입장을 전하고 사업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참석 허가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기재부는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30만 광명시민의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승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장은 "구로구 민원 해결을 위해 구로지역 정치권 요구에 따라 국가가 추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탈바꿈됐다"라며 "이런 비상식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18년 동안 타당성조사만 3번이나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한 걸음도 진행하지 못한 부당한 사업"이라며 "광명시는 일관되게 반대를 외치고 소통을 요구했으며 공정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불안과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 속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끝끝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으로 이동해 비상대책위원 5명과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 광명시민의 의사를 전하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정부 관계자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세워 결의문을 허수아비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공대위는 정부가 광명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사업을 백지화할 때까지 삭발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통행 사업이 3번째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광명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국토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어떠한 국책사업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할 수도 없고 해셔도 안 된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박승원 시장과 양기대 국회의원,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경기도,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 60곳 추진

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 시 찾아가는 기술자문 첫 시행

경기도가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을 올해 11개 시·군 60곳에서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3일 평택시 단독주택 3곳에서 주택의 노후도를 점검하고 방수, 지붕개량, 단열 방법 등을 제안하는 등 첫 기술자문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은 스스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적절한 공사 방법을 알기 어려운 고령자, 비전문가인 주민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집수리 기술자문 위원이 현장 방문해 주택 노후 상태 확인 및 공사 방법 등을 자문하는 것이다.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이란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 원 한도까지 보조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사업 대상은 150호다.

기술자문을 받은 A씨(평택시)는 "집이 오래되고 낡아 비도 새고 단열도 안 된다.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자문단이 직접 찾아와 공사 범위랑 방법을 알려주니 안심이 되고 고맙다"라고 밝혔다.

이은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 집수리 공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경기권 거점으로 도약

국토부 200억 스마트시티 사업 선정 고양특례시 컨소시엄 참여

고양산업진흥원은 4일, 고양특례시가 '국토교통부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이노베이션 센터로 확장·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구축해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양특례시는 국비 총 200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고양산업진흥원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 본부, ㈜시티랩스 등과 고양특례시 주관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며,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이노베이션센터로 확장하여 거점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4월 24일 공모 사업 평가단 일행이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했으며, 고양산업진흥원은 2016년 구축·운영 중인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시설 현황과 시민 참여 리빙랩 사업 성과들을 직접 시연하고 설명한 바 있다.

향후 이노베이션센터는 본 사업에 적용될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술 개발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리빙랩을 운영하고 관내 유관 기관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컨설팅 지원, 성과 확산, 규제 해소 및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고양산업진흥원 오창희 원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양특례시가 경기권의 광역거점 스마트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진흥원은 이노베이

션센터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영기기자

정장선 평택시장, "노년이 빛나는 따뜻한 도시 만들겠다"

평택시는 노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고 8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는 어르신 자택 근처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게 되는 '주민센터'에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충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생활 속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후가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8년도부터 노인복지관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21년에는 서부노인복지관을 신속 개관하여 이용 어르신이 전년 대비 43%가 증가(1일 500여 명 이용)했으며, '25년도에는 약 586억 원을 들여 북부노인복지관 및 도일복지관 착공과 함께 고덕복지관 이용을 시작으로 노인 여가 생활 증진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다.

올해에도 38억 원 예산을 지원하는 4개 복지관(남부, 북부, 서부, 평성) 및 노인대학은 사회교육, 교양강좌, 체육활동 등 연중으로 1일 4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건강지킴이로서의 노인복지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총 3843명이 참여하게 되는 일자리는 일일

3시간씩 월 10회 참여하게 되는 공익형 일자리부터 1일 8시간 근무하게 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까지 어르신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일원으로서 존재감 형성까지도 미치게 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비 6억4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379개의 일자리를 추가 확보하여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어르신 육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아 고통받는 노인 세대가 없도록 홀몸노인을 중심으로 △맞춤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부 묻기 유제품 지원사업 △무료 급식 지원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는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을 더욱 살필 계획이다.

어르신의 문화·체육활동으로는 노인 지도자 교육을 비롯하여 △그라운드 골프 대회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 지원 △이동복지관 사업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서로 향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 취미활동, 사회교육을 통해 은퇴 이후 노년층이 사회생활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약 13억 원을 들여 경로당 현대화사업과 함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가 경로당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어르신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누리는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2023년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정책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현식기자

Das Beste! 박형준 시장, 독일 함부르크에서 역대 최고의 순방성과 거뒀다

박형준 시장, “이번 독일 함부르크 순방을 통해 다방면에서 역대 최고의 부산세일즈 성과를 거뒀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5월 4일부터 7일까지의 독일 함부르크 순방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은 함부르크시 페터 첸처 시장의 함부르크 방문 요청과 세계 최대 항구축제인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에 부산시가 주빈도시로 선정됨을 계기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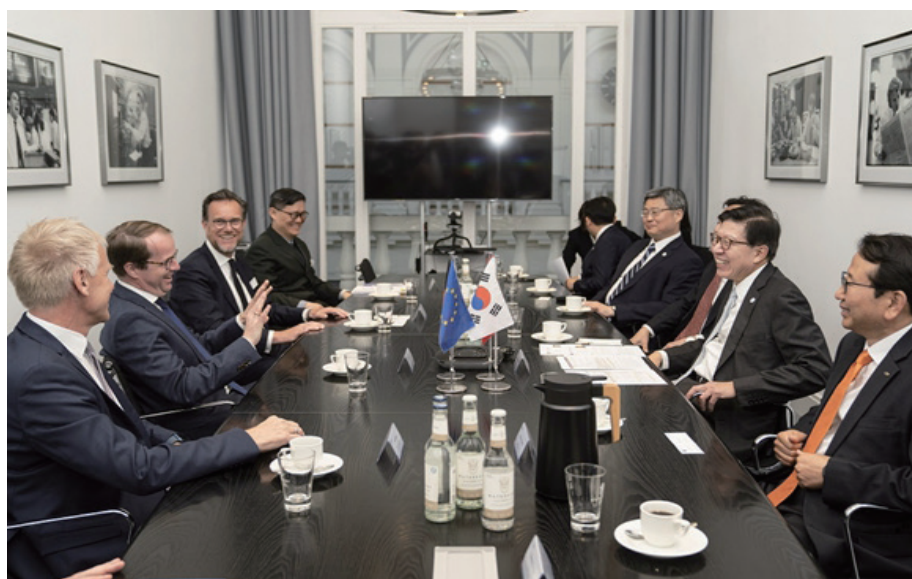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순방에서 ▲ 독일 공영방송 NDR(Norddeutscher Rundfunk, 북부독일방송)의 특종보도 등을 통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 함부르크 유력 기업인들과 네트워크 강화 및 실질적 경제협력 창출 ▲ B-Food(부산음식), 부산관광, 북항재개발, 부산갈매길, 부산항 축제, 부산시 우수 중소기업 등 홍보 ▲ 항만재개발 사업 등 양 도시 전략적 관심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사업 추진 등 목표 이상의 역대 최고의 순방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박 시장은 함부르크 순방 기간 다수의 독일 및 함부르크 정·재계 인사들과도 면담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후보와 개최 후보도시 부산의 매력과 강점을 알리는 ‘부산세일즈’ 활동을 적극 펼쳤다.

구체적인 순방성과는 먼저,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함부르크시청에서 페터 첸처 함부르크시장과 ‘부산시-함부르크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자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이날 함부르크시청에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양 도시는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통해 ▲ 그린 스마트 도시 및 탄소중립 ▲ 항구 디지털화 및 도시재생 ▲ 문화, 예술, 축제, 관광, 보건, 교육, 과학연구 및 인적 교류 등 전략적 관심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같은 날 함부르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항-함부르크항 도시개발 라운드테이블’과 ‘친환경 해양 컨퍼런스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양 도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선·해양 분야 친환경 기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독일 기업들과 투자 상담 등도 가졌다.

현지시각으로 5일 오전에는 독일 공영방송 NDR과 대한민국-부산 페스티벌 행사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NDR 뉴스에 특종으로 보도돼 독일 전역에 방송됐다.

같은 날 오후 박 시장은 성미카엘 교회의 ‘함부르크 개항축제 기념예배’에 참석하고, 현지 한인 사물놀이패들로 구성된 대한민국-부산 퍼레이드 대열에 합류, 대한민국 부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함께 홍보해 수많은 함부르크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서, 세계 최대의 항구축제인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의 공식 개막행사에 참석해 레오나드 함부르크 경제혁신부 장관과 함께 개항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세레머니 행사를 가졌다.

이번 개항축제에서 시는 주함부르크총영사관과 협업체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항축제와 연계한 ‘2023 대한민국-부산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 행사장 내 엑스

포 홍보 대형 미디어 큐브 ▲ 부산시 정책홍보관 ▲ 미식도시 부산 홍보관 ▲ 부산시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시관 등을 운영했고, 특히 국기원 태권도 시범, 록그룹 카디, 케이팝(K-POP) 커버댄스팀, 한국전통문화, 성악 전문가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시가 선보인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홍보관 등에 함부르크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호평 일색이었으며, 각 홍보부스의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참여하는 관광객들로 행사장은 발디땀 났을 정도였다.

특히, 대한민국-부산 페스티벌의 특별 이벤트로 개최한 함부르크 유력인사(VIP) 대상 리셉션 및 B-Food(부산음식) 테이스팅(Tasting, 시식) 행사에서 부산 음식과 함부르크 현지 메뉴를 재해석한 요리를 제공해 참석 인사들에게 ‘Das ist lecker’, ‘Das Beste!’라는 찬사를 받았다.

현지시각 6일 오전에는 양 도시의 항만재개발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컨소시엄-부산항만공사-하펜시티공사 간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하펜시티 일대를 시찰하며 북항재개발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약 2

천여 명의 현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란등스브뤼케에서 열린 케이팝(K-POP) 밴드 ‘카디’의 공연에 직접 참석해 축하인사를 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곡 등을 부르며 한국문화(K-Culture)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알리는 ‘카디’에게 힘을 보탰다.

이날 저녁 박 시장은 부산시 대표단과 함께 함부르크 정·재계 유력인사 250여 명이 참여하는 ‘캡틴스디너(Captain’s Dinner)’ 행사에 초청받아 페터 첸처 함부르크 시장 부부 등과 소통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와 도시외교 외연 확장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2023 대한민국-부산 페스티벌 행사에는 약 1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들은 시가 마련한 다채로운 이벤트 등을 체험하며 한국문화(K-Culture)에 매료돼 연신 최고라는 감탄사인 ‘Das Beste!’를 내뱉어, 이번 행사가 부산이라는 도시의 위상과 브랜드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투자유치 논의, 우호협력도시 협약 및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 간 양해각서 체결, 독일 및 함부르크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킹 강화, 그리고 미식도시 부산·부산관광·부산시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이번 독일 순방을 통해 다방면에서 역대 최고의 부산세일즈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유럽의 중심 함부르크시와의 우정과 연대, 협력을 강화해 유럽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페터 첸처 함부르크 시장은 캡틴스디너 행사에서 양 도시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말하며, 내년에 부산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순방 협력도시 체결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자고 밝혔다.

송중진/기자

영양군, '제16회 조지훈 예술제' 개최

한국의 문학(文學), 백일장 및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의 선비인 조지훈의 문학 사상과 정신을 기리고자 ‘제16회 조지훈 예술제’를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시인 조지훈의 고향인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에서 개최한다.

제16회 조지훈 예술제는 영양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 영양지부(회장 황태진)의 주관으로 2007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영양의 대표적인 종합문화예술 행사이다.

올해 조지훈 예술제 공연프로그램에는 조지훈 선생을 기리는 헌군다례, 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조지훈 전국 백일장 및 사생대회, 대북공연, 승무공연, 문학세미나 등이 있다. 전시프로그램에는 김난희 여사의 작품전시회, 제35회 심현초 대전, 조지훈 시인 도서 전시를 운영하며, 체험프로그램에는 전통 민속

놀이, 수목화드로잉, 목공예체험 등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다채로운 행사들로 운영된다.

특히, 조지훈백일장 및 사생대회, 조지훈시낭송 퍼포먼스대회는 지역민과 관광객, 청소년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조지훈 선생의 문학과 사상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감하는 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조지훈 예술제는 문학의 고장 영양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행사로서 조지훈 선생의 사상과 지조를 이해하고 문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산나물축제 기간 중에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학과 예술로 군민과 관광객이 소통하고 하나로 화합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박현국 봉화군수, 어버이날 행사 참석해 감사의 인사 전해



박현국 봉화군수는 8일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군수는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10개 읍면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또한 군수표창(효행자, 장한어버이) 대상 10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특히 석포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주최한 석포 청년회는 제51회 어버이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효실천 단체부분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어르신들 공경하는 효 실천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며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 그리고 밝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봉화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천시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11회 동부동 한마음 경로잔치 개최

영천시 동부동 청년회는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동부동 어르신 1500여 명을 모시고 조교동 영천농협 공판장에서 ‘제11회 동부동 한마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동부동 청년회 주관으로 각 기관단체 및 지역 기업체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최기문 영천시청, 이만희 국회의원,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최삼봉 노인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아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 부녀회, 적십자 봉사회원들의 도움으로 정성껏 마련한 음식 및 다과를 대접하고 초청가수 공연, 태권도 시범, 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의 흥을 더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

는 마음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관내 가장 고령인 신호달(98세) 어르신께 장수상을 시상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강의형 청년회 회장은 “동민이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오늘만 큼은 어르신들이 흥겹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한평생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오늘 이 행사가 경로효친 사상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영천시에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울릉군, 2023년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



울릉군은 지난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울릉 온 가족이 즐기는 축제 한마당’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울릉군이 주최하고 울릉군 여성단체 협의회의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공연장 및 로비에서 진행됐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행사가 활기를 띠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과 함께 어린이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부함에 기부 후 받은 쿠폰으로 일부 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사전공연으로 벌룬&버블매직쇼와 해군 118조기경보전대, 공군 8355부대, 울릉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마련한 해상 구명장구 교육, 공군 모형 비행기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체험부스에서는 커피박공예, 미니게임 3종, 팬

시우드 만들기, 세계 전통의상 체험, 포이, 음주고글 체험, 과학실험 등 22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울릉군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축적 사진 찍기, 팝콘 등을 제공하고,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행사 당일 자원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닭강정, 미니 김밥, 어묵탕, 과일고치, 미니 홍어빵, 울릉 슬로푸드에서는 밀로도 흥감자빵, 특산나물비빔밥, 부지깥이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어린이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번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모범 어린이에게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비롯해 총 16명의 어린이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이날 어린이들과 각종 체험을 함께한 남한권 울릉 군수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현중/조강제/기자

달서구, 자활생산품 전시·판매전 운영

대구 달서구는 9일과 10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1층 로비에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생산품 전시·판매전을 가졌다.

달서구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성서·월배 권역으로 나눠 2개의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판매전은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돕기 위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카프, 마스크, 도시, 손수건, 각종 파우치 등 봉제 제품부터 샴푸, 바디용품, 수제비누, 주방세제, EM제품 등 친환경 생활용품 현미, 흑미, 보리로 만든 누룽지, 더치커피페트, 마들렌, 아몬드쿠

키 등 식품 수저받침, 티스푼, 접시, 머그컵 등 다양한 도예품 화기, 액자 등 가공 꽃 장식품 ▶ 목공예소품, 석고방향제 등 총 50여종의 다양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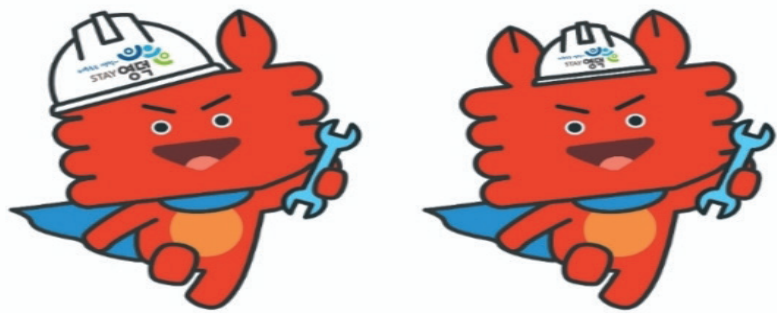
한편, 달서구는 달서지역자활센터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2개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체계적 자활서비스를 제공, 자활의욕과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활사업에 관심을 높이고 자활생산품 구매로 이어져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 운영

전화 한 통으로 전등 교체 등 취약계층 방문해 생활민원 신속 처리



영덕군은 사회취약계층의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을 8일부터 운영한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 불편으로 해결이 어려운 전등 고장이나 배관 막힘 등의 생활 밀접형 불편 사항을 무상으로 방문 해결하는 현장 민원행정 서비스다.

다만, 빈집이나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누수나 변기 교체 등 공사를 수반하는 사항, 안전사고 발생 우려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사항으로써, 영덕군은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달 11일 영덕군 새마을회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본격 운영하게 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직접 해결하기 어렵거나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현행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불편이나 불안 없이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민원 사항은 물론 마음마저 꼼꼼하게 챙길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민원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콜센터 733-8200(빨리영~)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통근버스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 첫 걸음!

경북도-대기업-운수사업자-수소충전업체 등과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

경북도는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달희 경제부차와 환경부, 7개 대기업, 12개 지자체, 7개 운수사업자와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6년까지 2천대 이상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와 성능보증기간 확대 등 정책적, 재정적 지원 △경북 등 지자체는 구매보조금 확보와 수소충전 기반 확충 △대기업은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노력 △운수 사업자는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신속하게 전환 △현대자동차는 차질 없는 수소버스 생산·공급 등이다.

경북도는 2019년 성주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 이후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난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5개소의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는 10개소에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소자동차는 2021년부터 보급 사업을 시작했으나 충전시설 부족으로 현재까지 308대 보급에 그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355억원(국비 267억원)을 투입해 수소차 296대(버스



68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충전시설 확충에 발맞춰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2025년 '포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동해안지역 수소 공급체제와 충전 기반이 구축돼 물류항만 거점인 영일만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을 축으로 수소상용

차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수소버스 전환으로, 수소버스는 물론 수소자동차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차장은 "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차(그린 모빌리티)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협약이 친환경 수소차로 대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으라차차!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으로 구미시민 치매극복 기원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극복을 기원하기 위한 '으라차차!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스마트폰에 ▲'워크온(Walkon)' 앱 설치 ▲구미시 치매안심센터 공식 커뮤니티 가입 ▲'2023년 으라차차!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클릭 ▲스마트폰 소지 후 걷기 등 과정을 통해 구미시민이라면 누구나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 기간은 5. 8 ~ 5. 17일까지로 10일동안 총 8만보(1일 최대 1만보 인정)를 달성한 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챌린지 기간 중 챌린지 게시판을 통한 치매파트너 온라인 교육 수료 인증이나 치매안심센터 인증 사진과 치매극복 응원메시지를 작성하는 '우리는 치매파트너입니다.' 이벤트도 진행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민 누

구나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참여해 건강도 챙기면서 치매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상주시 지방소멸대응 실무추진단」출범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상주시 인구감소대응의 '중추적 역할'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시 지방소멸대응 실무추진단,을 출범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상주시 지방소멸대응 실무추진단은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거 최우진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분야 담당 공무원 12명과 교육·보육,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문화·관광, 다문화·이민자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설정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 사업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우리시 사업 발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현/기자



안동시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시민 중심, 참여 중심 콘텐츠로 과감한 변화 시도'

'내빈석 없애고, 축사도 생략... 축제 콘텐츠에 올인'

월사! 달사! 뜨거운 함성이 원도심을 관통하며 신명과 흥의 축제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모디684(구 안동역) 앞 민속관 무대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은 기존들을 완전히 탈피해 별도의 의식행사가 없이 차전놀이와 뾰족다리밧기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특히, 평소 관객석 맨 앞줄부터 3~4줄을 차지하던 내빈석을 과감히 없애고, 4~5명에 달하는 주요 참석 인사들의 환영사, 격려사 등 축사도 전부 생략했다. 관객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 알찬 축제 콘텐츠를 제대로 선보여 기대치를 충족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이와, 차전놀이 공연에서는 동부예권기창 안동시장과 권기희 안동시의회 의장, 서부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형동 국회의원이 동체를 타고 차전장군 역할을 하며 무대로 입장해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차전놀이 동부대장과 서부대장의 지휘에 따라 동·서부의 6개의 읍면동과 일반시민 관광객 등 천여 명의 대규모 놀이꾼이 물결을 일으키듯 6차선 도로 위에서 군무를 펼쳤다.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권석환 안동문화원장이 개막을 선언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신나는 고고장구와 함께 차전대동놀이가 진행

되고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개막식에 앞서 문화공원에서 축제의 기원을 알리는 성황제가 진행됐다. 이어, 12시부터 모디684 앞 민속관 무대에서 유림들의 의식으로 축제를 알리는 서제, 공민왕을 추모하는 헌다례, 동춘서커스, 안동상여소리, 안동뾰족다리밧기, 시민화합마당&차전대동놀이가 이어지며 마지막 행사로 힙 민속관 나이트로 시민 모두가 춤마당을 펼치며 첫날 프로그램이 끝났다.

또한, 안동판 스트리트(모디684-행운카페차장)에서는 햄프시드 시리즈 및 가양주 전시. 안동 농·특산물, 전통술 전시판매, 향토음식전시 및 판매, 안동한우축제가 진행되고 민속관 광장(모디684 앞)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민속 bar가 축제 기간 운영됐다.

민속관 스트리트(교보생명~모디684)는 차전놀이, 뾰족다리밧기 체험, 읍면동 옷놀이, 널뛰기대회, 한복판 나들이, 음식체험, VR체험, 플리마켓 등 체험장도 운영됐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웅부공원에서 기제사 시연, 안동상여소리&안동구말이씻김굿 행사가 진행됐다.

제50회 차전장군과 노국공주 축제



는 앞으로 5월 8일까지 안동의 원도심에서 대형민속공연과 자매도시 초청공연, 민속콘텐트를 통한 거리형 축제로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의 흥과 신명의 한마당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석환 안동문화원장은 "안동은 전통 문화가 오롯이 보존된 고장으로 특히 고려 건국과 공민왕 몽진 등의 역사적 사실을 뿌리로 차전놀이와 뾰족다리밧기 등의 전통민속이 탄생했다"라며 "민속문화의 보고(寶庫) 안동답게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힘쓰는 한편, 이번 축제를 통해 안동

문화의 저력과 가치를 널리 선보이며 알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축제는 민속콘텐트를 6차선 도로 위로 끌어온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세계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차전놀이와 뾰족다리밧기라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독창적인 콘텐트를 양대 축으로 삼아 축제의 흥행을 이끌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민속의 우수성을 알리고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장애인선수단,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체육강군 면모 과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우수한 성적 거둬

봉화군 장애인선수단이 2일 울진군에서 개최된 제25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봉화군 장애인선수단의 체육강군의 면모를 과시했다.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5,000여 명의 선수단과 보조자, 임원 등이 참가해 그 어느 대회보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봉화군 장애인선수단은 육상, 볼링, 배드민턴, 한궁 등 4개 종목에 24명의 출전했다.

포환던지기(금메달-서명희), 볼링(은메달-유준태), 창던지기(은메달-이귀남), 포환던지기(은메달-박종석), 한궁 혼성(동메달-이국형, 엄영희), 한궁 개인(동메달-이국형) 등 총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장애인체육의 강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편, 2024년 제26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도 경북도민체전이 열릴 구미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개최

안동차전놀이, 놋다리밟기 주제로 다양한 행사 열어

지난 4일 옛 안동역 자리인 '모디 684'에서 안동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를 주제로 한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매년 10월 열리던 '안동민속축제'를 안동 민속 양대 대동놀이인 '차전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와 '놋다리밟기(도무형문화재 제7호)'를 통해 올해부터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재탄생하게 됐다.

그동안 열린 민속행사의 틀을 벗고 주제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선택해 지역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거듭났다.

개막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형동 국회의원이 차전놀이 동채를 타고 서부 차전장군으로 입장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권기익 안동시의회의장이 동부 차전장군으로 입장해 서로의 동채를 부딪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관람객들에게 환호성을 받았다.



안동의 대표 대동놀이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차전놀이는 후삼국시대 고창(안동 옛 지명)전투에서 고려 왕건이 안동 삼태사의 도움으로 후백제 견훤에게 승리한 기념으로 전래된 남성 대동놀이이다. 놋다리밟기는 고려 공민왕과 그의 부인인 노국공주가 안동으로 몽진 당시 마을 아낙네들이 허리를 굽혀

등을 밟고 강을 건너게 해 그 후 여성 대동놀리로 전승됐다고 한다.

이런 행사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와 연계해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옛 안동역사 앞 도로 및 웅부공원 등지에서 풍물경연대회, 민속체험, 어린이 놀이기구 운영 등 체험프로그램과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다양한 먹거리행사 등으로 이뤄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 대표 민속축제인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개최를 축하한다"고 전하며 "문화의 보고(寶庫)이자 K-헤리티지의 중심인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문화 일번지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 어린이날 사회적기업 체험형 프로그램 성료

드론 비행체험 놀이와 로봇개 활용한 APEC 유치 홍보는 아이들 뜨거운 관심 보여

경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가 5월 101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체험형 프로그램을 펼쳐 인기몰이를 했다.

협의회는 당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주)경주제과, (주)아트세상, (주)말하기세상, 나는드론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씨앗 등 총 16곳 사회적기업이 참여했다.

체험행사는 손소독제, 텀블러, 희망나눔 볼펜 등의 나눔 이벤트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각종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체험행사 중 나는드론사회적협동조합의 드론 비행체험 놀이와 로봇개를 활용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홍보는 아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이날 어린이날 체험행사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친근감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리

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낙영 시장은 "사회적가치를 우선적으로 실현하면서 기업의 이윤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APEC 경주유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림 경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장은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겁게 즐기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는 회원 108명을 보유한 단체로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윤태용기자



영주시,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선비문화도시 알리며 폐막

축제 마지막날까지 계속된 비...행사-체험 축소에 아쉬움 가득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인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7일 폐막식을 끝으로 끝은 날씨 속에서 사흘간의 축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린 이번 축제는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서천 둔치 일원에서 '신비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첫날인 어린이날부터 폐막일까지 많은 비가 내려 야외 공연-체험 행사가 취소되고 실내 행사도 축소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만에 전면 대면으로 열린 축제에서 선비문화를 직접보고 체험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선비도시 영주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악화로 하루 연기해 6일 저녁에 개최한 개막행사는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선비문화축제 주제 공연, 고지전달식, 초대가수 축하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돼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어울림의 장이 됐다.

1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이번 축제 메인이벤트 '선비의 산책-컴백 신

바람 퍼레이드'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공모로 선발된 10여개 경연팀들이 참가해 취타대, 대형 선비 퍼펫(인형), 풍물패 등과 함께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서원에서 유교를 배우던 선비가 거리로 나와 세상을 깨우친다는 주제를 전하며 축제를 뜨겁게 달궜다.

소수서원과 선비촌, 선비세상 일원에서는 선비정신이 담긴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극단 갯돌이 펼치는 전통 연희 한마당, 맨동아미 화전가, 선비세상 어린이 축제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어린이날 연휴를 맞은 가족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7일 저녁 7시 폐막식은 축제 스케치 영상시청 후 우수프로그램과 관계자 시상식에 이어 폐막 축하공연과 어버이날 기념 효도공연으로 가수 김다현, 명창 유영숙의 공연으로 흥겨운 무대가 이어져 관람객들이 마지막까지 축제를 함께 즐겼다.

김덕우 영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축제기간 동안 많은 비로 어려움이 컸지만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리다"며 "내



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선비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선비문화축제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을 되새기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윤근수기자

2023 예천활축제 연계 지역특화 관광상품개발 심포지엄 열려

전국 대학생들 창의적인 관광상품 아이디어 쏟아져

2023 예천활축제 연계 행사로 6일부터 7일까지 '경북 예천군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주제로 관광 심포지엄 및 전국 대학생 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다.

예천군이 주최하고 (사)한국관광서비스학회에서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6일 문화회관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맞춤형 관광 활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한남대 한학진 교수가 기초 강연을 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로컬 관광 트렌드와 예천활축제 활성화 방안',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명소 발굴과 관광마케팅 방안'을 주제로 한양대 정관수 교수와 (주)먹고놀랩 이우석 대표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중부대 남태석 교수를 좌장으로 예천군의회 강경탁 의원과 경상북도청 관광마케팅과 손삼호 팀장, 한국관광공사 이지연 대구경북지사장, 박성수 박사, 김남현 교수, 예천문화관광재단 권두현 이사, 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이상호 박사가 논객으로 참여하는 종합토론회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회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생 관광상품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예천



군 지역특화 관광상품개발, 지역관광 콘텐츠, 지역축제, 체험 관광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7일에는 2023 예천활축제가 진행 중인 한천체육공원 일원을 방문했을 때 예천군 대표 관광지도 회룡포,

삼강주막, 용문사, 초간정 등 답사도 진행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토대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MZ 세대인 대학생들의 특목 투는 아이디어를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새롭게 태어난 영양 양조장을 선보인다

다시 태어난 영양 양조장 마걸리 '은하수' 시음 및 판매, 플라마켓 '별별마당' 개최

영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시 태어난 영양 양조장 홍보를 위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양 양조장 마당에서 도시재생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플라마켓 '별별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플라마켓 '별별마당'은 수공예와 먹거리 판매자들이 참여해 수공예 소품 및 목공예품, 보존화, 포슬린아트, 건어물, 영양군 농특산물, 음료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영양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마걸리 '은하수' 시음회도 개최한다. 시음회는 축제장과 영양 양조장, 총 2개소에서 5월 12일 ~ 13일 이틀간 진행되고, 마걸리 판매도 이뤄질 예

정이다. 그리고 양조장 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직된 '영양군 꽃차사 회적협동조합'이 지난 5월 초에 영업을 본격 시작하여 꽃차, 마걸리푸딩 등을 판매한다. 양조장의 연혁과 사진 전시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양조장 역사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배준현 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한 영양 양조장을 산나물축제 방문객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축제기간 동안 본 축제장뿐만 아니라 양조장 마당에서 열리는 플라마켓과 꽃차사 회적협동조합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장애인 건강관리 능력 강화

2023년 장애인 재활사업 '어울림 운동교실' 운영

청송군은 상반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소속 장애인을 대상으로 5월 9일 ~ 7월 4일까지 "어울림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어울림 운동교실"은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진보면 농아인협회 및 우왕산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 소도구 활용 재활운동, 만성질환자 건강상담 및 정신질환자 심층상담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운동프로그램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활동이 축소됐던 지역 장애인의 운동기능 유지 및 신체적·정서적 지지를 강화시키고 사회참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장애인 돌봄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의료 통합서비스 강화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함평군, 경기도 용인특례시와 자매결연 체결...상생발전 '맞손'



▲ 왼쪽부터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익 함평군수, 윤영랑 함평군의회의장

전남 함평군과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3일 "용인특례시와 이날 오전 함평군청에서 양 지자체 간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영랑 함평군의회의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관광·예술·체육·경제·교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특히, 두 도시 간 문화예술단체 상호 교류, 상호 지역축제 활성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정보교류, 농·특산물 직거래 등의 교류 사업을 중점 논의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오늘 협약을 기초로 한 양 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양 기관의 각종 역량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함평군과 자매의 인연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양 도시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진기자

'어린이가 행복한 전라북도' 대축제 성황리 개최

사전 예약 통해 어린이 및 가족 등 2,000여 명 참여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전라북도는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어린이 및 가족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오후 각 400명의 어린이를 초대할 이날 축제는 식전공연과 기념식, 아동권리헌장 낭독을 비롯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을 넘어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많은 어린이들을 마주할 수 있어 기쁘다. 전북도는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성장하고, 매일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어린이 남, 여 2명이 직접 모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해 이목을 끌었다.

특별 체험놀이 프로그램으로는 ▲ 요리마당(솜사탕·인절미 만들기 등), ▲ 전통마당(투호놀이, 비석치기 등), ▲ 오감마당(캔버스 그리기, 키링 만들기 등), ▲ 놀이마당(색깔판 뒤집기, 줄다리기 등), ▲ 상설마당(체험관 내 상설프로그램), ▲ 창의마당(마술·VR체험 등), ▲ 정보마당(드래곤 프로그램) 등 7개 분야의 72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울러 도는 모든 아이들이 가정의 달의 온기를 누릴 수 있도록 6일 도내 아동복지시설 소속 어린이 130여 명을 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특별 초대해 페이스페인팅, 공연, 상설체험, 요리교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오직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만을 생각하며 지은 공간이다.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더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은 오직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만을 생각하며 지은 공간이다.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더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당일 행사에 체험 부스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등록된 차량만 입장을 허가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이남출기자

전북도·남원시, 남원에 첫 외투 기업 유치 합심

전북도·남원시, 중국계 외투기업 (주)윈트레이드와 투자협약

전북도와 남원시는 8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 (주)윈트레이드와 과자류 생산 공장을 남원도암산업단지에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윈트레이드는 올해 12월 공장 가동을 목표로 214억 원을 투자하며, '23년 40명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총 8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가 '전라북도에서 성공할 기업을 위해(전성기)'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노력한 데다, 중국 내 과자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맞아떨어졌다 분석이다.

또한, 과자를 중국에 수출하는데 있어 전남 광양항과 1시간 거리에 있는 남원 노암산업단지의 지리적 여건이 고려된 전략적 투자로도 해석된다.

이번 투자는 전북도 동부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윈트레이드의 원활한 사업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윈트레이드에 감사드립니다"며, "남원시에 유치된 첫 번째 외국인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외투기업이 남원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선화 전북도 기업유치추진단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전라북도에서 기업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동부권 경제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라북도에서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무주군, 우리농산물 토종모종 나눠요!

무주군은 무주토종연구회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꾼 토종모종 6천주를 9일 군청 후정에서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눔 행사는 무주토종연구회 주관으로 열리는 것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토종씨앗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급과 증식, 보존에 대한 동참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민들과 나누게 될 토종모종은 칠성초(고추)를 비롯해 가지와 토마토, 상추, 사과참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토종연구회 장영란 회장은 "나눔 행사가 무주에서 자생하고 있는 토종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 연구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토종자원 확보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무주군농업기술센터와도 끊임 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종모종 공급은 무주토종연구회가 '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는 칠성초, 봉어초 등의 고추 종류와 가지, 대파, 오이 등 8종 13,600여주를 공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장원 연구개발팀장은 "토종유전자원은 재래종이나 야생종으로 한반도에 잘 적응한 동·식물을 말한다"라며 "오랜 기간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해 환경변화와 병충해에 강한 특성이 있는 만큼 기후변화 속에서 토종자원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주에서 수집한 울공과 청지감자, 한삼수수 등 토종자원을 활용한 실증시험재배를 통해 농업적 이용가치 향상과 소득화 사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토종모종 나눔 행사가 대를 물려오던 종자를 비롯해 새로운 유전자원을 발굴하는 계기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장우기자

장흥소방서,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 확보 지도 및 컨설팅 실시



장흥소방서는 노유자시설 관계인의 피난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운영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도를 추진했다.

이동 불편 환자가 많이 입소하여 있는 노유자시설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계인들의 입소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 등을 통하여 큰 인명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장흥소방서에서는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 확보 지도를 위하여 ▲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작성내역 점검 ▲ 안전약자 길잡이 살려도 보

급 및 재정비 ▲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입소자 피난방법 및 피난동선 반복 숙지사항 확인·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최근 화순 노유자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만큼, 평상시 관계인들이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 등 경각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대피 및 대응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관서에서도 적극적인 훈련지원 및 컨설팅을 통하여 효과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폴란드 파빌리온, 예술 밖 경험까지 교류"

광주비엔날레 폴란드 파빌리온 개관식 참석



▲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폴란드 파빌리온, 예술 밖 경험까지 교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남구 양림동 10년후그라운드에서 열린 폴란드 파빌리온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 운영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전시 큐레이터 세바스티안 치초키(Sebastian Cichocki)와 마리안나 도브코프스카(Marianna Dobkowska), 전시 작가 올라 미친스카(Olga Micińska)·말고자타 쿠시에비치(Małgorzata Kuciewicz)·시몬데 야코비스(Simone de Iacobi)·파웰 쿨친스키(Paweł Kulczyński)·알리샤 치첼(Alcja Czyczel), 아담미츠키 에비츠문화원 관계자, 폴란드 유학생,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 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큐레이터 전시 소개, 프트르 오제프스키(Pi-otr Ostaszewski) 폴란드 대사와 바바라 샤보브스카(Barbara Schabowska) 아담미츠키에비츠문화원 관장의 인사말(대독), 작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강 시장은 "폴란드와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폴란드 파빌리온이 폴란드와 광주를 잇는 문화대사관으로서 예술뿐 아니라 예술 밖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폴란드 파빌리온은 갤러리포도나무, 10년후그라운드, 양림샬롱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먼저 10년후그라운드, 양림샬롱에서 5월 5일부터 7일까지 강, 워크숍, 사운드아트 등 다채로운 공공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포스트-아티스틱 어셈블리'를 제목으로 '포스트 아트'라는 용어를 도입한 예술평론가 예지 루드빈스키(Jerzy Ludwin'ski)와 연관된 공공프로그램이며, 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현재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갤러리포도나무에서는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우크라이나와 연대 및 지지를 위해 우크라이나 프리필름스(Freefilmers)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병수기자

서울국제관광전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나서

순천으로 올라오세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동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국제관광전조직위원회와 국제관광인포럼이 주최하고 코트파가 주관하는 '제38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순천여행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쳤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 도심과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에서 우리 정서와 문화를 녹인 창조적 박람회로 운영되며, '오전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는 세계적 잔디를 맨발로도 걷고 자유롭게 누비면서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다.

서울국제관광전은 한국관광산업

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박람회이다. 시는 2023정원박람회와 함께 순천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과 맛있는 순천음식,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등 대표축제와 투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순천여행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장 한 달여 만에 관람객 250만명 이상이 찾아오고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박람회 기간에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했으니 정원으로, 순천으로 올라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전남도,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서 69만달러 수출계약

친환경 '남도음식' 케이푸드 대표 브랜드 홍보 성과

전라남도는 농수산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최근 '2023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FHA)'에 참가해 69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에 전통 건축양식을 적용한 부스 디자인으로 '전라남도 통합 홍보관'을 설치해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김, 유자, 건어물, 김치, 장류, 천일염 등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을 활용한 대표 수출기업 14개사가 직간접으로 참여해 총 304건의 구매자 상담을 진행, 전남 농수산식품 기업을 홍보하는 등 남도 음식을 케이푸드(K-Food) 대표 브랜드로 알리는 데 집중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구매 상담을 위해 현지 유통 구매자 12개사를 사전 섭외해 수출 상담을 주선하는 등 현장 상담이 실제 수출로 실현되도록 주력했다.

그 결과 유기농 차 가공식품 수출기업 보향다원이 50만 달러, 조미용 천일염 수출기업 해여름이 15만 달러, 유자 가공식품 수출기업 예덴식품영농조합이 4만 5천 달러의 수출

계약을 했다.

또 건어물 수출기업 (주)아라움이 50만 달러, 김치 수출기업 신세계 F&B가 40만 달러, 장류 수출기업 고려전통식품이 37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특히 (주)아라움은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해 판매하는 크리스피 스낵드 스낵(오징어 튀김스낵)에 대한 중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형 유통 구매자의 수출 문의가 이어지면서 입점 조건과 수출 가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 장류 식품명인 기순도 명인의 고려전통식품(대표 고훈국)이 싱가포르 스타 셰프 페트리나 로(Petrina Loh)가 운영하는 모슬즈(Morsels) 레스토랑에서 현지 언론과 식당 관계자, 유관기관 등을 초청해 명인의 '장'을 활용한 다양한 퓨전요리 시식행사를 진행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박람회에 참가한 한규모 해여름 대표는 "전남도 통합 홍보관을 통해 부스를 운영하면서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 계약까지 이뤄졌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라남도'라는 브랜드를 지속 홍보

계약을 했다. 또 건어물 수출기업 (주)아라움이 50만 달러, 김치 수출기업 신세계 F&B가 40만 달러, 장류 수출기업 고려전통식품이 37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해 해외시장 인지도를 높이면 전남의 작은 수출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자국민 건강을 위해 2019년부터 고당 음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등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전남 농수산식품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 세계적으로 케이푸드 위상이 높아졌으나 중국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 김치와 떡볶이 등을 직접 생산

해 산 가격으로 납품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전라남도'를 케이푸드의 대표 브랜드로 적극 홍보해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남도 농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행사,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해명기자

완도해경, 장보고 수산물 축제 "해양경찰 홍보부스" 인기

행사장 일대 안전관리 및 구명조끼 캠페인으로 해양안전문화 기여

완도해양경찰서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기간 해양경찰 홍보부스 운영과 해상 안전관리 지원에 나섰다 고 밝혔다.

홍보부스는 ▲해양안전문화를 위한 VR 체험 ▲어린이 제복입기 '체험존' ▲해양경찰 마스코트와 함께하는 인스타 피켓 구명조끼 캠페인 '포토존' ▲구명조끼와 진입장비 착용·사용법 교육이 이뤄지는 '해양안전문화 확산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축제에 온 많은 가족들이 방문했다.

특히, 이번 홍보부스는 어린이 VR 체험과 인스타 피켓 구명조끼 캠페인을 통해 관람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홍보부스를 방문한 A군은 "오늘 사진도 많이 찍고, VR도 해보고 너무 재밌어요. 크면 해양경찰이 될래요"라며 좋아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행사장 일대에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배치하여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해상수락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즉응태세를 유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양영욱기자



"공룡과 떠나는 시간여행"해남군 어린이공룡대축제 대성황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해남어린이공룡대축제가 낯선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성황을 이뤘다.

5일부터 7일까지 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해남군 황산면 해남공룡박물관에는 아침일찍부터 가족단위 관람객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길게 이어졌다.

5일 하루동안 7천여명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낯선 개면서 야외놀이터가 개장한 6일과 7일에는 두배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가 내린 5일에는 대부분 행사가 공룡박물관 내부로 이동해 진행된 가운데 6일부터는 야외 행사도 예정대로 열렸다.

공룡박물관 앞 잔디밭에 주무대와 어린이 놀이터, 각종 체험부스가 마련돼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6일에는 희망 해남 아이사랑 행사를 갖고, 아이키우기 좋은 해남 만들기를 위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해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열었다.

명현관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공룡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를 확대해 올해부터는 어린이공룡대축제를 시작해 어린이들이 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어린이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해남이 기억될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룡박물관 잔디밭에는 30m 에어바운스와 레일기차 등 어린이들을 위한 대규모 놀이 공간이 조성됐으며, 공룡열차를 타고 천연기념물인 우항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돌아보는 공룡발자국 탐험대, 공룡에어바타와 함께하는 공룡버블퍼레이드가 펼쳐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종 공연과 동동노래방, 가족운동회 등 가족단위 행사와 함께 박물관 내외부에서 다양한 공룡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해남어린이공룡대축제는 연휴 마지막날인 7일까지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계속될 예정이다.

윤선애기자



나주시, 제19회 영산포 홍어축제 개막식 이모저모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후 7시 영산포 홍어의 거리 야외 공연장에서 '제19회 영산포 홍어축제' 개막식이 펼쳐졌다.

홍어 시 낭송과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홍어의 거리 야외공연장에서 총 3막으로 구성된 개막공연을 진행했다.

바다의 어머니로 불리는 홍어 할머니가 등장해 관객들에게 600년 전통의 영산포 홍어 이야기를 익살스럽게 들려줬다.

요리하는 성악가로 유명한 전준한 셰프와 윤병태 시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 등은 즉석에서 홍어 무침을 만들어 관객들과 나눴다.

축제 둘째, 셋째날 각각 오후 4시 30분부터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홍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홍어요리교실'을 진행했다.

홍어를 재료로 조리한 라면, 만두, 어묵 샌드위치, 커피 등 이전에는 없던 독특한 K-FOOD(케이푸드)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세대별 홍어 애호가를 선발하는 '홍어킹을 찾아라', 홍어를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는 '홍어 깜짝판매', '홍어 예쁘게 썰기', '홍어 탐 샅기' 등 관람객 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리를 걸든 홍탁, 홍어회, 찜, 홍어애국 등 다양한 홍어 음식을 판매한다.

6일 오후 6시부터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가수공연(홍진주, 양진원)과 '5060 K-POP 홍어 디스코 파티'가 예정되었다.

김영만기자

진도군, 취항 1주년 맞은 산타모니카호, 누적 탑승객 20만명 돌파

진도-제주 취항 1주년 이벤트 '핑퐁'



진도-제주 쾌속카페리 '산타모니카호'를 운영하는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가 취항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취항 1주년 이벤트는 ▲헌혈자 운임 할인 ▲승선 인증 경품 이벤트 ▲제주바다 플로깅 ▲단체고객 현수막 제작 ▲즉석 참여 이벤트 등이다.

지난해 5월 7일 운항을 시작한 산타모니카호는 하루 2회 진도-제

주 구간을 왕복 운행해 1년 동안 20만명의 관광객과 3만8,000여대의 차량을 수송, 진도군 관광 활성화와 해상 교통권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매일 1회 추자도 경유편을 운항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산타모니카호는 승객 606명과 차량 86대 선적이 가능한 3,500톤 규

모의 선박으로 시속 83km 속도로 1시간 30분 만에 진도와 제주를 연결하는 초쾌속 카페리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제주와 전남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해상 관광의 핵심인 산타모니카호가 취항 1주년을 맞이했다"며 "진도군 관광 활성화와 해상 교통권 확대에 노력해 온 씨월드고속훼리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구례군, 화염사 석등 및 화염석경관 개관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암사(주지 덕문스님)는 소중한 국가문화유산인 화염사각형전양 석등(국보 12호)을 62년 만에 부분해체 보수하는 고불식(각형전 양 석등, 5월 10일, 오후 1시)과 화염석경복원 보존을 위한 첫걸음으로 화염석경관 개관식(5월 10일, 오후 2시)을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대화암사 화염석경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염사를 1,300여년 밝혀온 화염사 각형전양 석등은 전체 높이 6.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석등은 1961년, 1986년, 2009년 3번의 수리기록을 가지고 있다. 1961년은 전체해체보수, 1986년은 접합복원, 2009년엔 전체체적을 했다. 1961년은 기초를 콘크리트로 다짐 후 전체해체보수를 했고, 화사석상대석 등 기존의 부재들을 목재로 보강하여 재사용했다. 1986년은 간주석 박리로 떨어져 나간 부분과 옥개석의 떨어져 나간 부분을 수지처리하거나 접합 복원했다. 2009년은 건식과 습식세척을 사용하여 전체 세척을 했다.

2023년 62년 만의 부분해체보수는, 석등은 그간 시행된 정기조사(2012년, 2015년, 2018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2014년), 정밀안전진단(2015년) 등의 결과, 석재 표면 박리가 다수 확인되며 특히 화사석과 상대석 균열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립 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19년부터 중점관리 대상 석조문화재로 선정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 4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화사석에서 구조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관통상 균열 11개소, 표면균열 1개소가 확인됐으며, 최소 6조각으로 파손된 상태였다. 상대석도 관통상 균열이 확인되며 최소 2조각으로 파손된 상태였다. 특히 화사석의 수직 균열은 해당 기간 균열 폭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진행성 균열로 판단되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해체 및 보존 처리하기로 하여 고불식을 갖게 됐다.

한편 13세기 중반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를 기원하고자 목판에 새긴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과 달리 "화염석경(보물 제1040호)"은 8세기 중엽 연기조사가 장륙전(현 각황전) 내부

사방벽에 부처님의 말씀인 화엄경을 돌에 새긴 석판을 설치한 것으로 영원불멸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화염석경은 오랜 세월과 정유재란(1597년), 그리고 풍화로 1만 4천여점의 파편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지만 그 존재가치만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보물이다.

화염석경관 개관식에 앞서 덕문스님은 "화염석경관은 문화재를 보존의 관점에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문화재를 누릴 수 있도록 활용하는 관점으로 지었다"고 하면서 "화염석경이 조성될 무렵의 시기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룬 후 화려한 민심을 모으기 위한 일환으로 정신적인 무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히 백제인들에게, 화염사상을 중심사상으로 즉 중생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모두 행복하고 더불어 사랑하고 다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화엄정신만이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전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고, 종교, 빈부 갈등, 노사 갈등 등 모든 것이 분열된 세태라고 한다면 덕문스님은 "화염사상을 통해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반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무라카미 보편 바로 석경의 복원 사업을 통해 석경정신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다"고 개관식에 앞서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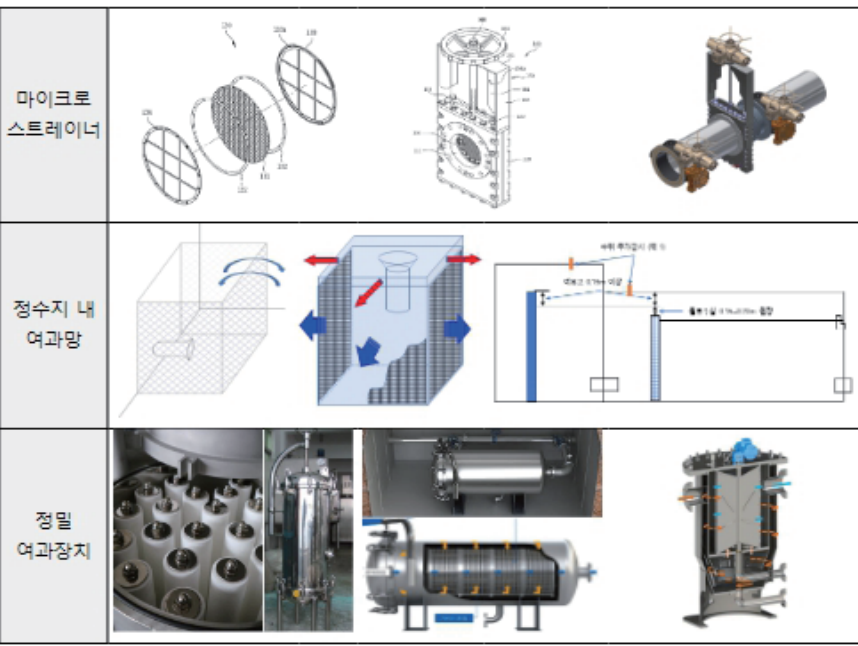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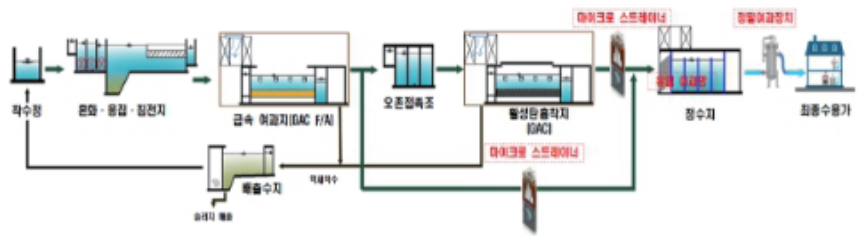
화염석경은 정유재란 때 화재로 변색되어 회갈색과 암갈색을 띠고 있다. 작은 것은 5~10자, 큰 것은 100자 내외의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글씨체는 해서체이다.

화염석경관은 연구수장동 1개동(지하1층, 지상2층), 관리지원동 1개동(지상1층, 전통한식구조)로 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문화재청 지침이 확정되어 현지조사 용역,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19년 11월 문화재청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2023년 1월에 공사와 감리완료 후 준공검사가 승인되어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화염석경의 보존, 관리, 연구, 복원 등을 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초대 화염석경관장에는 화염사 문화국장 우견스님이 임명됐다.

김성현기자

환경부, 전국 483개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점검과 지원 실시



한편, 환경부는 정수장 유충 발생 및 방지를 위해 2021년부터 2년여 걸쳐 총 1,942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에 깔따구 성충 또는 유충 유입을 방지하는 미세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위생관리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에도 15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475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내에서 유충이 발견되더라도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생물 유충차단설비(마이크로스트레이너, 정밀여과장치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정수장 위생관리개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올해 2월 광주광역시 덕남정수장의 노후 밸브 오작동에 의한 단수사고를 계기로 3~4월에는 전국 483개 정수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 바 있다.

당시 특별점검을 통해 정수장내 주요 공정별 시설 안전성과 기계설비류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노후설비는 교체·정비를 유도하고, 경정비 사항과 운영관리 미흡사항은 즉각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과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정수장에 대하여는 기술 진단 및 지원과 더불어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등 정수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의 정수장 483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섬), 지역별 외부전문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한다. 합동 점검단은 483개 정수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수장로의 유충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과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정수처리 공정별 세부 운영·관리 현황, 수도사업자별 유충 감시(모니터링) 여부 및 방법 등을 점검한다.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수용가, 水用家)으로 유충 유출 우려가 있는 정수장은 시설개선 또는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

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전북특사경, 공중·식품위생업소 집중 단속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공중·식품위생 안전성 확보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중·식품위생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숙박·식품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2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기간 동안 도내에 머무는 선수단 및 관광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단속대상은 숙박시설 내에서 조식 등을 제공하는 업소 110여 개소(숙박업소 46, 일반·휴게음식점 64)이다.

숙박업소의 주요 단속 사항은 ▲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관리 여부, ▲숙박요금표 비치 여부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사용 여부,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교육 및 현지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더워진 날씨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위생관리로 아태 마스터스대회 동안 도민 및 방문객에게 청결한 위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충북도,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

5.8.~5.12.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단속

충청북도는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추진하며,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5개 권역(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

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광주광역시,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단속

광주광역시는 8일부터 6월9일까지 시민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주거지역, 산단, 농공단지 등과 가까운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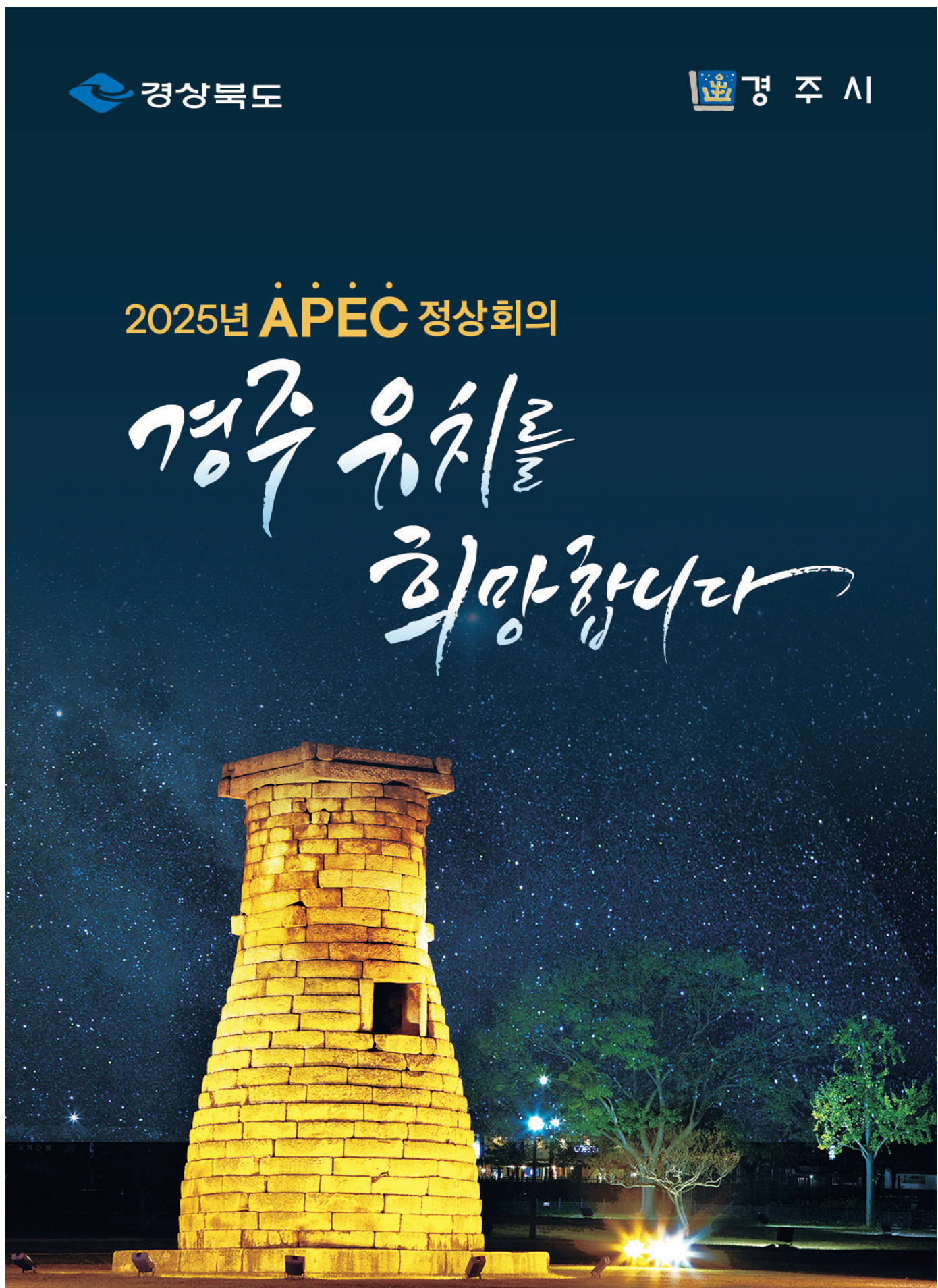
주요 단속 내용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부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다.

광주시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내용은 광주시 관련 부서와 관할 지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수기자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신한류 문화를 노래하는 축제의장”

5월 5일 독립기념관서 2023 천안 K-컬처박람회 출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천안시는 5일 독립기념관에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개막 100일 앞두고 박람회의 시작과 의미를 알리는 ‘K-컬처 박람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박람회 서포터즈 100명, 천안국제화교육특구사업단 원어민 영어강사 40여명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라퍼커션의 타악 연주에 맞춰 참석자들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박상돈 시장과 한시준 관장의 기념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또 천안스트릿협회의 케이팝(K-POP)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날을 맞아 독립기념관을 찾은 많은 대내외 관람

객들에게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홍보했다.

이날 박상돈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한류의 근간이 된 불굴의 의지는 독립운동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독립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을 품은 천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K-컬처’를 완성해 천안시를 신한류 거점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2023 천안 K-컬처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독립기념관 입구의 웰컴존, 거례의집 앞마당의 공식행사 및 K-컬처 공연 등 무대 행사, 독립기념관 전역의 K-컬처 전시·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며, 독립기



기념관의 서곡캠핑장은 지역예술 및 인디공연 활성화를 위한 K-프린지페스타가 펼쳐지게 된다. 이외에도 거례의탑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600여 대의 ICT 드론

태백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용연동굴로 가자!"

용연열차 재개 및 진입로 정비로 통해 관광객 맞이를 위해 만전

태백시 용연동굴은 봄을 맞아 태백 관광지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기 위한 재정비에 들어간다.

먼저 코로나19 및 각종 어려움으로 3년 동안 열차 운행이 중지되어 그동안 관광객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열차 운행을 재개하여 늦은 봄을 맞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난 4월 29일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용연 열차 운행을 재개하여 추억 여행을 시작한다. 용연열차 운행은 매표소에서부터 동굴입구 1.2km를 무궤도 열차인 트레카를 타고 눈 앞에 펼쳐지는 절경을 감상하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안전한 열차운행과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7월 성수기 이전에 용연동굴 진입로 포장 및 낙석방지책을 완료하여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용연동굴 안의 온도는 항상 9℃~11℃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다. 총 관람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고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환형 동굴이다. 동굴에는 진귀한 동굴생물 38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동굴 내부에는 준비하게 놓여진 종유석, 석순, 유석 등의 각종 동굴 생물들과 동굴산호가 잘 생성되어 장관을 자아낸다.

태백시 관계자는 “용연동굴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5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을 실시하고, 안전한 열차운행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진입로도 정비를 통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시설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광객들의 많은 방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상근/기자



▲용연동굴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숲속 힐링의 모든 것 환상의 숲 전시관 조성

휴양치유관 조성, 관객들과 함께하는 캐릭터 퍼포먼스 및 산림 치유 공간 연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주행사장에 숲을 통한 힐링의 모든 것을 만나 볼 수 있는 환상의 숲 전시관, 휴양치유관을 조성한다.

휴양치유관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5개의 전시관(푸른지구관,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휴양치유관, 산악교류관) 중 네 번째 전시관으로, 숲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휴양과 치유의 기능들에 대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숲속 놀이터와 캠핑장의 연출을 비롯하여 산림레포츠 VR체험과 다양한 전시를 통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전시관은 크게, 4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첫 번째인 입장 공간은 ‘숲, 감각을 열다’를 테마로, 나무넙쿨 페이퍼아트로 조성된 신비한 숲 게이트를 따라 관객들의 발걸음을 주 전시관으로 이끈다.

이어서, 두 번째 공간은 ‘포레스트 액션 그라운드’ 테마로, 환상의 숲, 동화의 상상 속 산림을 연출한 공간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관객과 소통

하는 시간을 갖는다. 산악초 밭에서는 허준으로 분장한 배우가 산악초의 효능에 대해 소개하고, 숲속 웅덩이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으로 분장한 배우가 숲의 휴양치유 기능에 대해 소개하며, 산나물 밭에서는 대장금으로 분장한 배우의 산나물 효능과 레시피, 야생화밭에서는 호랑이로 분장한 배우의 야생화 소개가 이어진다.

세 번째 공간은 ‘숲 속 광장’ 테마로, 동물놀이 체험물과 그네·해먹·그물놀이 등 이루어진 숲 속 놀이터 공간과 함께, 숲 속 캠핑장 공간을 연출하여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산림 레포츠를 가상현실(VR)기기로 간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숲 속에서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숲 속 도서관 공간도 조성한다.

마지막 네 번째 공간은 ‘특별전시존’으로, 산림청·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자생식물 등 아름다운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산림치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휴양치유관은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휴양·치유적 기능이 얼마나 큰지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휴양치유관을 통해 산림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느껴보고,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영인산 철쭉제, 새로운 아산축제로 만들겠다”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영인산 철쭉제 6일부터 7일간 열려

6일, 영인산 수목원 잔디광장에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영인산 철쭉제 개막식이 열렸다.

영인산 철쭉제는 아산시 대표 명산인 영인산 철쭉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과 힐링할 수 있는 문화 축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개막식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영인·음봉 지역단체 및 수목원 관광객 등 200여명 참석했다.

이날 비아트로 앙상블의 클래식 공연과 초청 가수 공연, 어반스틱 난타공연 등 릴레이 버스킹 공연이 열려 방문객들에게 흥미를 더해 주었다.

이와 함께 철쭉제에서는 철쭉 에코백 컬러링, 진달래 차 마시기, 철쭉 속 즉석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숲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찾

아온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추억을 담은 축제가 되도록 했다.

박경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영인산 철쭉제는 처음 시작한다는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만개한 영인산 철쭉제를 성용 이순신 축제 기간에 개최하고, 기간도 연장해 아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개한 철쭉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함께 열어 영인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아산의 대표적인 꽃 축제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첫날 기념행사를 마치고 영인산 휴양림 속 박시시설 등을 점검하며 관계자에게 “영인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호/기자



동해시, '예산 6천억원 시대 열었다' 현안사업 청신호

6,087억원 편성, 당초예산 대비 18.42% 증가

동해시가 민선 8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올해 예산 6천억원 시대를 열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46억원(18.42%)이 증액된 6,087억원으로, 일반회계 5,579억원, 특별회계 508억원이다.

이 같은 원인은 국·도비 보조예산, 보통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액,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각종 시설 건립에 따른 입찰금 수입 등의 정부 및 자체 재원이 확충됨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권역별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 확충 및 시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 특화도시 동해·완성을 위해 시정 주요 현안사업 중 각 분야별 우선 추진할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로개설 편입 물건 보상, 포장공사, 위험시설 정비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안전 분야 관련사업도 반영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북평중~봉오마을간 도로개설 67억원, 문어상~어달항 간 해안 보도 설치 13억원, 동해역~동해항 입구 과선교 간 도로개설 부지 보상 16억원,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문어) 건립 13억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8억원을 비롯해, 무릉별유천지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 15억원, 치매 전담 요양 시설 신·증축 12억원, 전천파크 연습장 조성 2.5억원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에 159억여원을 편성했다.

또, 혁신지원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한섬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보장이 140억원, 도로개설 편입 물건 보상 17억원,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9억원, 초구~만우 간 도로 확장 공사 10억원을 비롯해, 과학영농종합단지(농업용 유통미생물 배양센터) 시설 장비 구입 18억원,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카데미 정비 20억원, 여촌 영거조직 운영 지원 11억원 등 주요 투자사업에 265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주민편의 증진 및 정주환



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보전금 48억원, 교통신호기 개선공사 및 북평 119 안전센터 증축 12억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원, 전천 가로등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 2억원 등 총 78억여원을 투입했다.

한편, 시는 추경예산안을 지난 4일 동해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추경예산안은 12일부터 진행되는 제331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지역경제 견인 '우수 기업' 찾는다

도, 이달 말까지 10월 개최하는 제30회 충남 기업인대상 후보 모집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30회 충남도 기업인대상' 후보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인대상은 기업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경영 능력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을 등록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도 제조업력 포함)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이다.

접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기업체 실태 평가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 시군 기업 지원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기업 건설도와 경영, 기술, 일자리, 수출,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수상자는 9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기업에는 종합대상, 경영·기술·장수창업 4개 부문 최고 기업에는

부분별 대상, 우수기업인 5명에게는 우수기업인상을 각각 수여한다.

수상 기업에는 도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 추가 1%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산업포장 추천 우선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모범근로자상 10명, 지원기관·단체 임직원 표창 5명도 선정해 시상하며, 중소기업중앙회장상 4명, 충남중소기업연합회장상 3명은 각 협회가 자체 선정해 별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도 기업지원과 또는 각 시군 기업 지원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황침현 도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인대상 수상 기업은 경영 능력과 기업 건설도, 기술력 등을 인정받는 만큼 대외 신인도를 향상할 수 있고 제품 홍보 효과도 크다"며 "도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경북도, 2단계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자족도시 조성 착착

산업시설 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 추진

경북도는 도청이전신도시의 활성화와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개발계획(12차) 및 2단계 실시계획(6차) 변경 승인을 추진한다.

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10.966㎢ 부지 내 계획인구 10만 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258㎢ 규모에 1조 429억원을 들여 인구 2만 5천여명이 정주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1단계 도시기본시설 조성을 완료했다.

올 3월말 기준 상주인구는 2만 6천여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7만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기능과 그



에 따른 문화, 체육, 호텔, 공원, 학교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한다.

3단계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산업시설, 공원, 유보지 등을 포함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요 변경사항은 신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구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기능과 그

시설 조성을 위해 3단계 사업구역 일부를 2단계로 편입(A=253,283.5㎡)하고,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다양한 규모의 유보용지 6개소를 분산 확보했다.

학교 배치계획의 최적화로 교육특화도시 조성, 공원·녹지계획 변경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호민지

복측 도로 직선화 등 도로기능개선과 공동주택 최고층수 상향 조정을 통해 좀 더 나은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 조성된 호민지 수변생태공원과 더불어 임상이 양호한 원형보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신규 지정하고, 호민지 경관을 활용해 주상복합, 특화상업, 특화주거 기능을 부여해 생기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변경을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산업시설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이전과 주민 편의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민간자본 유치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600억 원 이차보전

2.5%로 확대 지원

부산시는 고금리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고, 시에서 이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차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완화해 주는 정책자금이다.

시는 지난해 0.8~1.7% 지원하던 이차보전 혜택을 올해 1.5~1.7% 상향한 바 있으나, 최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 지속과 에너지 가격상승 등으로 폐업 및 신용위기에 상황의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 특별자금 60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2.5%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 확대는 부산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긴급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산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부산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씩 보증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상품은 두 개 은행과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오늘(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이재용 회장, 글로벌 제약사들과 연쇄 회동... '제2 반도체 신화' 구현에 박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미국 동부에서,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 및 바이오 벤처 인큐베이션 회사 등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가짐으로써 '제2반도체 신화' 구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회장은 ▲호아킨 두아로 J&J CEO ▲지오반니 카포리오BMS CEO ▲누바 아페얀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 CEO ▲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CEO ▲케빈 알리 오가는 CEO와 각각 만나,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J&J는 창립 140여년의 역사를 가진 명실상부한 글로벌 Top Tier 바이오 제약사로서 삼성의 주요 고객이며 ▲BMS는 2013년 삼성에 의약품 생산 첫 발주를 함으로써 삼성의 바이오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기업이다.

▲플래그십의 누바 아페얀 CEO는 모더나의 공동 설립자로서 삼성과 mRNA백신 생산계약을 통해 국내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함께 기여했으며, 양사는 유망 바이오 벤처 발굴 및 육성에도 함께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모두 삼성에 매각했지만 삼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럽지역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등 현재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10여년 전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삼성은 이 같은 주요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이를 통한 미래 성장산업 선점 ▲압도적인 제조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1위 CDMO 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1년 11월 미국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 본사를 찾아 누바 아페얀(Noubar Afeyan) 모더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과 만난 모습

업으로 도약했다.

이재용 회장이 바이오 업계 리더들과 연쇄 회동을 한 것은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협업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바이오 사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바이오 산업은 생산 기술과 R&D 역량은 물론 장기 협업을 위한 신뢰

와 평판 구축이 필수적이며, 진입 장벽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다.

이 회장의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는 삼성 바이오 사업이 빅파마들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제약사와의

미팅 후, 북미 판매법인 직원들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이 회장은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다, 과감하고 끈기있는 도전이 승패를 가른다,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가자"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전북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2건 선정

뿌리특화단지(익산, 완주) '23년 6.6억 원 투자, 단지별 고도화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익산-U주열리 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2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은 전국 45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뿌리기업의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익산-U주열리 특화단지는 400백만원(국비 252, 도비 20, 시비 30, 민자 98),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260백만원(국비 140, 도비 40, 군비 60, 민자 20) 등 총사업비 660백만원을 확보했다.

익산-U주열리 특화단지는 귀금속 표면처리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18년 특화단지 지정 이후 2021년,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는 '공동브랜드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디지털 커머스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주열리 라이버커머스 및 제품 활용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 조성, ▲고객관리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전략 프로그램 교육, ▲오프라인 활동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간담회·포럼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활동 등이다.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금형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15년 특화단지 지정 이후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문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부품개발을 위한 ▲역설계 지원, ▲특화단지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벤치마킹 연수단 파견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자원과 뿌리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지원해, 뿌리단지별 특성을 살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뿌리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 뿌리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영세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 4개의 지원사업으로 약 4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 뿌리산업 현황 분석, 차세대 뿌리기술 육성 및 정부정책 연계 방안 등 중장기 육성 계획으로 '제4차 전북 뿌리산업 중합발전계획('24년~'28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경기도, '경기 RE100' 유망 에너지기업 15개 사 선정해 맞춤형 지원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만드는 '경기 RE100' 전략 일환으로 추진

경기도가 도내 기후환경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경기 RE100 유망에너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하나로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기도 기후·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5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정서 및 현판(인증 기간 3년)이 수여되며 ▲신제품 개발 ▲국내외 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선정된 에너지 중점기

술 4대 16개 분야(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 깨끗 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장)의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에 포함되는지 사업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지원 기업 중, 드론용 연료탱크를 개발하는 하이리움산업(주)은 수출 향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액화수소 연료탱크 제작공정 지원을 받아 액화수소 저장 용기의 생산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0배 이상 증가했다. (주)에스엔케이(ESS)와 이를 충전하는 통합 교환형 충전스테이션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누리집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을 받아 CES 전시회에 참가해 해외 판로개척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대표 에너지기업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전년 대비 9% 증가한 240억 원 매출액을 달성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지구를 살리는 기후테크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며 "도내 유망 에너지기업의 혁신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경기 RE100' 정책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공고는 이지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2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및 신청 문의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가정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아빠와의 만남, 아빠와 함께 해봄'

초등학생 자녀와 아빠, 다양한 신체활동, IT기반 체육활동, 농구 체험

경기도교육청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빠와 함께 하는 체육활동으로 바른 인성을 키우는 '아빠와의 만남, 아빠와 함께 해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6일, 13일, 20일 3주 토요일에 걸쳐 도내 초등학생 72가족이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아빠와 함께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며 친밀감을 키우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사전에 2,500여 가족이 신청자가 몰리는 등 학부모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녀를 위해'라는 인성교육을 시작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다양한 신체활동 ▲미래로 세계로 프로그램 ▲



농구 체험 등을 저학년(1~3학년), 고학년(4~5학년)으로 나눠 운영했다. 학생들은 레크레이션, 협동게임, 함께 달리기 등 아빠와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며 존중·배려·협력·책임 등 공동체성을 경험했다. 또 IT기반 아

날로그 스포츠 던지기, 킥, 드리블, 슛 콘텐츠 등 '미래로 세계로 프로그램'에서는 아빠와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늘 미안했는데 오랜만에 즐겁고 행복했다"라며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성정현 체육건강과장은 "부모와 함께 체육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마련해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미래교육의 희망을 그린다!

대구교육대학교에서 350여 명 대상 특별 강연 실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4일 대구교육대학교에서 대학원생 및 학부생, 학부모, 초등 교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의 희망, 경북에서 꽃피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상상할 수 있는 교육 발전 정책에 대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강연회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육가족이 힘든 시기를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위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교육청의 △온라인 국제교육과정 △사이버독서학교 세계화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개발도상국 정보화 기기 및 교원연수 지원 △학생 국제 봉사활동

확대 정책 등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예로 들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친화적·도전적 특성을 갖는 학습자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한 'ChatGPT' 등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학교 교육에서 단순히 지식을 찾고 암기하는 교육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신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교육의 원동력은 모든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도전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의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한 아이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보살피는 따뜻함으로 함께 미래교육을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경산발명교육

경산발명교육센터

찾아가는 발명교실 운영 실시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균)은 5월 2일(화)부터 찾아가는 발명교실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발명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주제중심 체험활동을 통하여 발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과정이다. 경산발명교육센터에서는 매년 학반 단위로 실시하는 발명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발명교육센터에서 학교로 나가서 이루어지는 출장 수업 중 하나이다.

찾아가는 발명교실은 4학년에서 중등 1학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출장 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따로 선별하여 발명이론 교육과 더불어 체험프로그램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을 사용하여 발명교육 신청받고 있으며 5월 2일(화) 장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 25명을 시작으로 9개교에서 40개 학급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인원으로는 882명이 교육받을 예정이다. 체험프로그램은 학년별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을 신청하면 된다. 김호상 경산발명교육센터장은 '경산발명교육센터에서는 발명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산발명교육의 저변확대

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발명교육센터에서 평일 교육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프로그램이 1일발명교실과 찾아가는 발명교실이다. 이를 통해 경산 관내 학생들의 발명교육이 대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올해에는

2500여명의 학생이 1일발명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5월부터 다양한 발명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재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을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를 통해 7억 9천여만원을 확보하여,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한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등록 청소년(만9세 ~ 만18세) 중 출석요건을 충족한 청소년에게 학령기 기준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참여수당은 교통비, 식비, 교재 구입, 시험응시료, 진로탐색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비 등에 사용된다.

또한 수당 지출 후 보고서 제출을 통해 수당 사용 내역에 관하여 1:1 컨설팅을 받으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및 교육참여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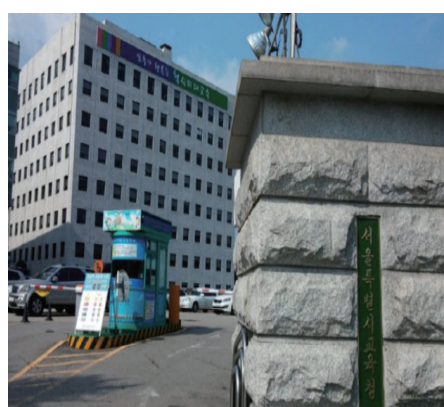
교육참여수당 지급 규모는 2019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내 학습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청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간 지급이 정지됐던 1~3월 기간 중 프로그램 출석요건을 충족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참여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급되는 교육참여수당은 50%씩 분할 지급하여 교육참여수당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외에도 소외없고 끊임없는 교육을 위하여 학교 밖 청



소년을 위한 교육·진로·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경남교육청, '아이톡톡! 안전톡톡!' 아이들 지킨다

아이북에 매달 안전 문구 자동 게시... 반복 노출로 주의 환기

경남남도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단말기인 '아이북'에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안내문을 보낸다.

학생들이 아이북에 접속할 때마다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과 수칙 등 안전 안내문이 자동으로 게시된다.

5월에는 '각종 행사안전(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등)'에 대한 안전 안내문을 게시하며, 학생 교육활동 유형 등에 따른 안전 내용을 매달 게시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학교 정상

화와 더불어 각종 교육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져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안전 문구를 노출시켜 주의 환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안승기 안전총괄과장은 "아이북을 활용하여 매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직접 알려 사고 예방 효과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부산교육청,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계고 교육환경 조성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본부장 공홍두)와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계고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업계고의 안전한 실습실 구축·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 안전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계고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안전이 보장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학생과 교직

원 대상 산업안전 보건 실무능력 및 역량 강화 ▲부산지역 학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 대상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교육 운영, 실습실 안전시설 개선사업 대상 학교 방문 컨설팅, 교직원 대상 교육지원, 현장실습 참여기업 대상 패트롤 운영 등 다양한 세부 추진과제 추진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안전 관련 최고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약을 계기



가 더욱 견고한 학교 안전 환경구축과 안전 문화 정착에 더욱더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봉화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이해 연수 실시

봉화교육지원청은 4월 26일, 5월 3일 2회에 걸쳐 내성초와 춘양초 두 개 권역별로 학교로 찾아가는 2023학년도 학생 생성 교육과정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하는 교육과정이다.

본 연수에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인 양만주(동양초교사), 이용석(봉성초 교사)가 이론 강의 및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하는 학교 자율수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실행 절차인 계획(plan), 실행(Do), 공유(Share), 성찰

(Review) 단계에서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교육 철학 및 실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2회에 걸쳐 4시간 연수를 이수한 참가한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프로젝트 학습과 교육과정 중추인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교사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주도성에 기초한 맞춤형 피드백과 교육과정 설계, 수업 실행 등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마련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부산시 '제17회 부산가족축제' 개최... 누구나 참여 가능

5월 21일 오전 11시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4년만에 대면행사로 개최

부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1일 오전 11시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제17회 부산가족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가족축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4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며,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지역 12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행사는 가족가치 확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하하하'(하나뿐인 부산, 하나로 모여, 하나 되는 가치)를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 '모든 가족을 포용, 사회와 가족이 함께 돌봄,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의 가족가치를 담은 36가지의 가족체형 ▲ 가족가치퀴즈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가족대회 ▲ 공연(부산K-타이거즈, 버닝소다) 등이 있다.

또한, 시는 이번 행사를 더욱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홍보단인 '하

하하 서포터즈'를 모집·운영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퍼포먼스, 응원글 남기기, 부산가족축제 소문내기 등의 이벤트를 지원하도록 했다.

부산가족축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면행사 외에도 시·공간의 제약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가족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오늘(8일)부터 부산가족축제 누리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부산가족축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17회 부산가족축제'는 BNK부산은행, 덕보의하루서면사상점, ㈜유스가 후원하고 신세계스파랜드, 키자니아부산, 삼진어묵이 협찬하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송종진/기자

경기문화재단,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한 '연계와 융합'

경기문화재단, 2023년 '융합과 상생' 키워드로 GGCF 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융합과 상생'을 키워드로 삼아 GGCF 정책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

2021년 '전환', 2022년 '공존과 협력' 시리즈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과 밀접한 유관 분야와의 '연계와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집중 탐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5월부터 9월까지 총 3회 개최 예정이며, 경기문화예술의 '기회'(콘텐츠), '혁신'(관광), '미래'(글로벌, 국제교류)를 테마로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5월 8일 '경기문화예술의 기회, 문화예술+콘텐츠' 정책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첫 문을 연다.

GGCF 정책라운드테이블 '융합과 상생' 1회 '경기문화예술의 기회, 문화예술+콘텐츠'에서는 경기도 우수 공연예술작품의 수준 높은 영상 콘텐츠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계 상생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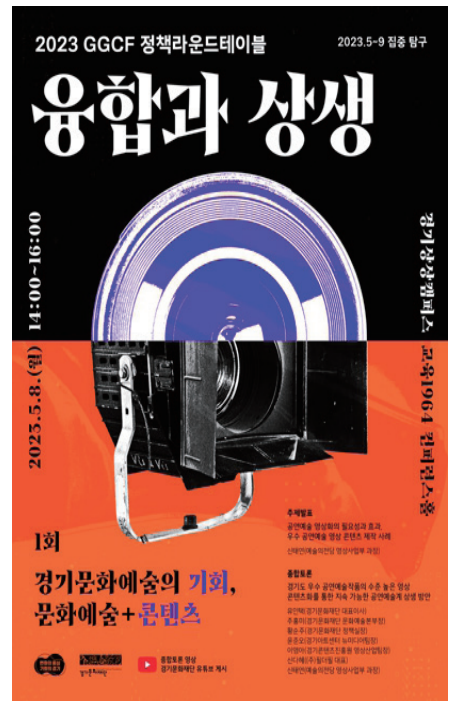
신태연 예술의전당 영상사업부 과장이 '공연예술 영상화의 필요성과 효과, 우수 공연예술 영상 콘텐츠 제작 사례'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영상화 제작 노하우 및 관객(소비자/시청자)들이 환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 현재 공연예술 영상화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며,

이후 유인택 대표이사, 주흥미 문화예술본부장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 콘텐츠 영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속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GGCF 정책라운드테이블 '융합과 상생'은 모든 회차 종료 후 재단 누리집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 종합토론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라운드테이블의 결과집발간(11월 예정)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아카이빙과 주요 문화예술관련 기관 배포 등 생산된 정책 콘텐츠의 공유와 확산을 지속 도모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5월과 6월 다채로운 볼거리 가득한 "강릉으로 오세요!"

산불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위한 캠페인 전개 및 각종 이벤트 집중 개최

강릉시는 4.11. 산불 피해로 침체된 지역 경기 및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강릉방문의 달'을 지정 운영하여 조기 일상 회복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이 기간동안 관광객 집중 유치를 목표로 강릉 방문을 적극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각종 행사와 다채로운 즐길거리, 볼거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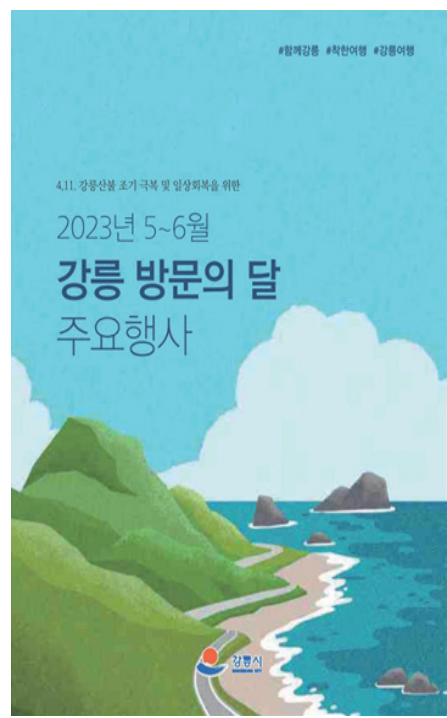
오는 12일 오후 5시 월화거리 야시장 개장식에 맞춰 김흥규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유관 기관, 단체,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여 강릉 관광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릉으로 오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산불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지역의 경기회복을 바라는 강릉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 국민에 전달하고 관광수도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보다 편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강릉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관광객 친절맞이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편 '강릉방문의 달' 기간 동안 축제, 공연, 전시, 국제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관광객 맞이를 빈틈없이 준비한다.

세계인의 축제 강릉단오제는 6월



는 '2023 강릉관광브랜드 공연 프레젠테이션'이, 6월 30일부터는 경포해변 중앙 광장에서 각종 수제맥주를 맛볼 수 있는 '경포 비치비어 페스티벌'이 열린다.

또한, 월화교 음악 조명 분수쇼, 월화거리 야시장이 상설 운영되며, 슬함수목원에서는 윤슬감성 투어 등이 추진되는 등 다양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에도 힘쓴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에는 양국의 관광협회, 유관기관, 인아웃바운드 여행업계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관광교류, 팸투어 등을 통해 지역 관광에 인기를 더한다.

이번 관광교류회의에 힘입어 인바운드여행사를 통해 5월에는 600여명, 6월에는 500여 명의 대만 관광객 모객을 추진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엄금문 관광정책과장은 "'강릉방문의 달' 운영을 통해 산불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7월 개최되는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정상화 속에서 세계인의 축제로 추진하겠다"면서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대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울진해경, '어린이 한마당 축제' 성황리에 마쳐

울진해양경찰서는 5월 5일 제101회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울진종합운동장 옆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어린이 한마당 축제'에 참가하여해양경찰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진압장비 착용, 해양경찰 제복입기 체험, 경비함정 종이접기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직접 해양경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나 해양경찰 마크와 캐릭터가 그려진 타투 체험과 경비함정 종이접기 체험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에게 바다와 해양경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은평구 전통시장·상점가, 2023 동행축제 참여

어린이 체험행사, 초청 공연 등 즐길거리 제공

서울 은평구는 경기 침체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9~12일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은평구, 시장상인회의 예산으로 개최하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는 연서·대림·중산종합·신응암 4개 시장과 연신내상점가, 불광역자골목형상점가로 총 6곳이 참여한다.

추천을 통한 경품 증정 행사, 초청 공연, 어린이 체험행사, 소셜네트워크(SNS) 게시글 이벤트 등 시장별 다양한 경품과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대림시장은 9~11일 1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홍보 물품 등을 추천해 증정한다. 연서시장은 10~12일 2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등 추천 통해 증정한다. 중산종합시장 10~12일 2만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으로 경품, 홍보물품 등 추천 증정과 각종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신응암시장은 10~12일 2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 등을 추천해 증정한다. 연신내상점가는 9~11일 구매고객 대상 경품, 홍보물품 등을 추천을 통해 증정한다. 불광역자골목형상점가는 15일까지 소셜네트워크(SNS) 이벤트 참가자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추천해 증정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이 시장과 상점가를 찾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군민과 함께하는 영양군의회

의회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Yeongyang International Dark-Sky Park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GAS KOREA GAS CORPORATION